Finance p/08

스마트뱅킹 고객잡기 경쟁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1

'국제시장' 베를린 영화제로

삼성 300억 투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북 구미시 신평동 모바일기술융합센터에서 개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날 삼성은 이 센터에 5년간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왼쪽부터 김진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뉴시스

삼성·LG전자 '희망 2015' 총력

전략 스마트폰 출시·B2B 강화로 먹거리 창출 전문가들, 올 침체장 잘 극복해 성장세 진입 전망

올 한해 악화된 업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에는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4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소폭 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이 위기를 발판 삼아 2015년에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분기 실적, 3분기와 비슷할 듯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 증가한 4조2000억~4조9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분기에는 성수기와 연말 쇼핑 시즌 진입 효과로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TV가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IM 부문 실적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품 라인업을 축소한 영향으로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폰 라인업 확충 등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반영될 만한 시점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올해 나쁘지 않은 한 해를 보낸 LG전자의 경우 좋은 실적을 견인했던 휴대폰 부문이 4분기에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분기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은 2009년 3분기 이후 5년만에 4조원대 매출을 회복했다. 특히 2분기에 세웠던 최고 판매량 기록(1450만대)을 3분기에는 1680만대로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4분기 애플의 '아이폰6',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 등 경쟁사의 제품이 줄시되면서 경쟁이 심화돼 기존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 2015년 모바일 '청크빛 전망'

2015년에도 전세계적인 불황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과 LG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B2B 역량 집중과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주력 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사는 내년 상반기 중 전략 스마트폰을 출시해 시장을 리드하고 B2B 채널을 강화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3분기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향후 완만한 실적 회복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2015년 1분기까지 조직개편,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 구축,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 출시 등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시기를 거쳐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 흐름을 타고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 좋은 성적을 올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부문은 내년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김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예전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기는 어려우나 2015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며 "D램 가격 하락 우려가 있지만 그 속도보다 원가 절감 속도가 빨라 DS사업부 역시 적정 이윤을 남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LG전자 역시 2015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은 내년 1분기 G플렉스, L시리즈, F시리즈가 출시되고 2분기에는 전략 스마트폰인 'G4'가 출시돼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다. TV부문은 OLED TV와 함께 울트라HD TV로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며 견조한 수익성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G3'로 제품력을 인정받은 만큼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 속도보다 LG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성장 속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인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19일 선고

헌재, TV생중계 밝혀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

17일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TV로 생중계된다.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은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소장은 지난 10월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금년 내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초 오는 22~24일께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내년 1월 말께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조현정기자 jyjo

'무한도전' 그 용기에 박수를…

기자 수첩
김 지 민
<연예스포츠부 기자>

지난주 MBC '무한도전'은 파격 그 자체였다. 앞선 방송에서 사과했던 노홍철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길과 노홍철이 하차하자 나머지 멤버들은 녹화 전날 밤에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했다. 제작진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유재석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을 '몰래카메라' 시험대에 올렸다. 멤버들과 친분이 있는 농구선수 서장훈이 미끼로 투입됐고 그들을 술자리로 불러냈다. 서장훈의 부름에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은 정준하였다.

하지만 그는 술을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고 제작진의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물론 나머지 멤버들 역시 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명수는 "술 좀 마신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술 마신 후에 뭘 하는지를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소 무모해 보였던 이날 방송에서는 수많은 깨알 웃음이 터졌고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무한도전'의 정공법이 통한 것이다.

'무한도전'은 오랜 방영기간과 높은 인기만큼이나 많은 사고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잡음에 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한 적은 없었다. 지난 5월 '홍철아 장가가자' 특집은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키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결국 멤버들은 방송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고 곤장을 맞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장난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과를 해도 욕을 먹었던 '무한도전'이었기에 이번 방송은 더욱 빛났다. 큰 용기를 낸 제작진과 멤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노근·최민희 의원 화해 악수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막말' 논란을 빚으며 충돌했던 새누리당 이노근(오른쪽)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이스버킷 챌린지'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새정치연합 '빅3' 동반 사퇴… 전대 레이스

●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박지원·문재인 비대위원이 17일 동반 사퇴, 내년 2·8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사퇴를 공식 선언하고 비대위원직에서 나란히 물러났다. 새정치연합은 18일 후임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한 뒤 19일 첫 비대위 및 당무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대 룰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중·인니 순방위해 출국

●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간의 중국 인도네시아 순방 차 17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의회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 의장은 18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마무리와 남북관계 개선 등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국방부 "휴일 예비군 훈련 상시 신청 가능"

● 국방부는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훈련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휴일 예비군 훈련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방작계훈련 중 1차 보충훈련도 휴일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땅콩 회항' 사태의 주인공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아, 질문엔 '침묵 모드'

검찰 출석하며 "죄송합니다"… 위력 행위 등 집중 조사

'땅콩 리턴' 사태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검찰청사 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비통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검찰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논란을 일으켰다.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를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 듣는 일"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폭행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지기자 kimdi@metroseoul.co.kr

'박지만 미행설' 문건도 박 경정 작성

측근 통해 박 회장에 전달… 오늘 영장 청구

정윤회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설 출처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정은 이 문건을 박지만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미행설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의 작성 시기와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경위,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문건은 박 회장을 미행하는 미행자가 쫓고 있다고 제보한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문건에 묘사된 구체적인 미행 방법 등은 올해 3월 시사저널이 보도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저널 보도에는 지난해 말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는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돼 있다.

3~4쪽 분량의 이 문건은 일반 공문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작성됐고, 미행자의 이름도 명시돼 있다. 문건에 나오는 미행자나 제보자는 박 회장과는 관련없는 인물로 알려졌다.

지인들로부터 미행설을 들었던 박 회장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보게 되자 정윤회씨 측을 배후로 강하게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서는 정씨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한 뒤 미행설과 관련해 정윤회씨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hu@

김무성 "비선 의혹, 연내 다 털고 가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여야 대치로 국회 법안 심사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어제(16일) 새누리당이 운영위 소집에 불응할 경우 여타 상임위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정말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은 정치 공세를 자제하고 민생 경제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야당이 '발목잡기'가 아닌 '퇴팡잡기'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기되는 인적쇄신 등에 대해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상황"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얘기했던 기조 그대로 하여튼 검찰 수사가 빨리 종결되어 한다. 올해 안에 다 끝내고 다 털고 잘못된 것에 대한 대처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기자

<EBS 수능 교재>

영어·수학 쉬워진다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 ·유아 영어학원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

EBS 수능연계 교재에서 영어와 수학 과목이 쉬워진다. 학습량을 감소시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2배에 달하는 EBS 수능연계 교재의 어휘수를(5668단어) 2017년까지 교과서 어휘(2984단어±20%) 수준으로 줄인다.

또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EBS 수능연계 영어 교재에서 추상적인 지문과 복잡한 문법도 가급적 배제하기로 했다.

EBS 수능연계 수학 교재에 대해선 교재 종류와 문항 개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추진한다. 2014~2015학년도 수능연계 교재 수학(자연계) 8종류가 2016학년도에는 5종류로 줄고 문항 개수는 올해 2926개에서 2015학년도 2520개, 2016학년도 2000개로 떨어진다.

교육부가 EBS 수능연계 교재의 난이도를 낮추기로 한 것은 사교육비에서 영어와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2조1000억원(65%)이 영어(6조3000억)와 수학(5조8000억)이 차지하는 등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고 선행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학원법 등을 개정, 외국인 강사의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을 비롯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학원비 단속 등의 종합정책을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추위에 중무장한 시민들 서울 기온 영하 10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은 시민들이 두꺼운 옷차림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원'이냐 '청탁'이냐

여의도 메드쿨

의원실엔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드나든다. 민원 전화도 많다. 그 중 일부는 청탁성 민원이다. 청탁은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국회에선 '부정 청탁'을 '민원'으로 순화해 부르기도 한다.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온 청탁을 사진기자에게 들키는 경우도 종종 보도된다. 보통 취업 부탁이 많다. 채용 절차에 "힘 좀 써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아직도 이런 민원 요청이 많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맥'도 능력으로 평가받는 요즘이다.

취업 청탁이 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민원인은 의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마련이다. 그 믿음으로 청탁성 전화를 한다.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힘써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특히 공기관은 더 그렇다. 공기관일수록 청탁이 가능하리란 기대를 갖는 게 민원인들이다. 일부는 피해의식도 있다. 자신의 출신 지역 때문에 공기관 입사가 좌절된다고 철석같이 믿는 경우도 꽤 있다. 의원이 힘을 써야 희소한 불공정한 채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민들이 많다. 너도나도 인사 청탁을 하니 나만 안하면 피해 받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다.

사기업의 경우 특정 지역 배제가 아직 있다. 그걸 부정할 순 없다. 다만 적어도 공공성이 강하고 국감을 받는 공기관일수록 지역 차별에 민감하다. 특정 지역을 배제했다간 국감에서 바로 지적되고 보는 눈이 많기 때문이다.

의원실에선 인사 청탁이 오면 일단 "알아봐 준다"고 한다. "해주겠다"는 건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다. 민원인 혹은 청탁한 사람 입장에선 의원실에서 알아봐준다고 답한 것으로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합격이라도 하면 의원 덕을 봤다고 고마워하기도 해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역시 의원을 통하니 해결됐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의원실 입장에선 '민원'이냐 '청탁'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역민의 뜻을 관철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소한 부탁이나 편법성 청탁 모두 신경써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곤경에 처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최근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아니라 집안 '민원'이라 비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본인도 "부끄럽다"고 표현했다. 조 회장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다. 학연, 인맥의 나쁜 사례다.

/유보라

롯데, '제2롯데월드' 잇단 사고에 공식 사과

최근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몰에서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에 이어 공사 중이던 인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가운데, 롯데그룹 사장단이 17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롯데물산·롯데건설·롯데월드·롯데시네마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11시 잠실 제2롯데월드 홍보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콘서트홀 건설현장 작업자 사망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로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아쿠아리움과 영화관에 대한 사용제한과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서울시의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어떤 안전 고객과 입점업체가 입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쿠아리움과 영화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 기관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롯데월드몰 전체에 대한 외부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저해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옥기자

경찰, '성추행 무마 의혹' 포천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서장원(56) 경기도 포천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오전 포천시청사를 압수수색했다.

포천경찰서는 이날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업무자량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의혹이 제기된 뒤 돌연 사직서를 내고 잠적한 비서실장 A(55)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서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B(52·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송주영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술진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경찰은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10일 소환 조사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네이버밴드'에서는 성인 음란물 유포 행위가 발견됐으나 성인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의무에 대해 적시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주영기자

서울메트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책 마련

서울지하철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가치 창출을 위해 정보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메트로는 선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여 공표항목을 2012년 68개 항목에서 2014년에는 127개 항목으로 크게 늘렸다. 현재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서는 주요 결재문서 원본을 PDF 형태로 공개하여 필요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개인정보 암호화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법규 준수와 권리보장이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 기반 하에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기반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3.0 및 데이터관리 전담팀을 신설한데 이어 외부 전문가 초청 데이터특강과 정보공개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체계적 데이터 운영을 통해 향후 인적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예측 등 데이터 분석에 의한 패턴분석 예측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투명한 데이터 개방으로 시민과 창의적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주영기자

여우 분장하고 닭 잡는 식당

metro HongKong

놀라 뛰면 육질 더 좋아

최근 중국에서 여우 분장을 하고 닭을 잡는 식당이 화제다.

광둥성 포산시의 한 식당에서는 손님이 닭고기 요리를 시키면 요리사가 여우 분장을 하고 닭장에 들어간다. 식당 사장은 제대로 된 닭고기의 맛을 내기 위해 여우 분장을 하고 닭을 잡는다고 밝혔다. 닭이 '인간 여우'를 보고 놀라서 뛰어다니다 잡히면 육질이 더 좋다는 설명이다.

문을 연 지 8년 된 이 식당은 몇 년 전부터 닭을 닭장에 가두지 않고 방목 사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진 사장은 많은 닭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인공 사료가 아닌 천연 식재료까지 먹였지만 운동 부족으로 닭은 지방이 너무 많아졌다.

그는 여우 분장으로 닭을 놀래키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곧 효과가 나타났다. 게을렀던 닭은 '헬스닭'으로 변신했다. 식당은 탄력있는 저지방 닭고기를 제공하기 시작,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리=조선미 기자

쾌감느껴 9년 동안 43명 살해

metro Brazil

Serial killer mata 43

브라질에서 43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검거돼 브라질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불과 26세의 이 범인은 리우데 자네이루의 한 경찰서에서 지난 주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 그는 9년 간 39명의 여성, 3명의 남성 그리고 한 명의 어린아이를 무작위로 골라 살해했으며 피해자는 모두 백인이었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청부 살인을 했던 경우도 있으며 살인을 저지를 때 마다 큰 기쁨과 쾌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가 울부짖거나 나에게 저항할 때 마다 기분이 좋았다. 1년 처음 범행을 저질렀을 때 살인 충동을 발견했고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만두기 어려웠다"라며 "원래 어린아이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정집에서 엄마를 살해하는 동안 아이가 요란스럽게 울어댔다. 이웃들의 눈지챌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죽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리=정지한 인턴기자

'장난감 성차별' 깨자!

metro France

"Princesse un jour, berfabe toujours"

최근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단체가 한 파리 백화점에 장난감을 대상 투쟁했다.

이 단체는 여자아이에게는 인형을, 남자 아이에게는 영웅 장난감을 사주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대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며 백화점 내 진열되는 마케팅이 여자 아이는 분홍색, 남자 아이는 파랑색의 장난감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아이의 성별에 따라 장난감이 구분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충격적인 모습이며 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판매자와 구매자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그들이 사고 파는 상품의 영향에 대해 한번쯤 생각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약한 표적' 골라 테러?

파키스탄탈레반, 학생 등 민간인 공격 우려

최근 파키스탄탈레반(TTP)이 학교를 공격, 학생과 교사 140여 명이 숨졌다. TTP가 일부러 민간인 등 '약한 표적'(소프트 타깃)을 골라 테러를 벌인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TTP의 사립학교 공격이 전형적인 약한 표적 공격에 해당한다며 파키스탄에서 단일 테러로는 최대의 사망자를 낳았다고 전했다.

이번 테러에서 희생된 학생들은 대부분 10~18세다. 국제 사회는 어린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TTP에 격분했다.

테러 단체가 약한 표적을 노리는 것은 테러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의 경우 보안이 취약해 건물을 장악하기 쉽고, 어린 학생들은 반격의 위험성이 적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학교는 군 부설 사립학교로 정부군 자녀가 많다는 점에서 복수의 의미도 있다.

파키스탄 안보 전문가는 "TTP가 테러를 통해 파키스탄군의 탈레반 소탕 작전을 약화시키려는 것 같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그는 이어 "TTP는 자신들의 군을 직접 공격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약한 표적을 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TTP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 비슷한 테러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했다.

한편 TTP는 2007년 파키스탄 내 이슬람 무장단체 13개가 연합해 결성됐다. 현재 2만 5000여 명의 조직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파키스탄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여기며 서구식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여성이 교육받는 것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여긴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10대 교육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에게 2년 전 총격을 가한 것도 TTP였다.

/조선미 기자

16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페샤와르의 사립학교에 침투한 탈레반 반군의 공격으로 다친 학생을 자원 봉사자들이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AP 연합뉴스

"나도 산타할래요" 17일 일본 요코하마의 하케지마 시파라다이스에서 흰돌고래가 붉은색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채 묘기를 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김정은 암살영화 상영 말라"

소니 해커 9·11사태 언급

"9·11 사태를 기억하라. 영화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이다."

AP·AFP 등 외신은 최근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소니영화사)를 해킹한 자칭 'GOP'(평화의 수호자)라는 단체가 이같은 위협의 글을 남겼다고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단체는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조만간 전 세계가 소니영화사가 제작한 끔찍한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세계가 공포로 가득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라"고 협박했다.

이어 "인터뷰 상영 시간에 그 장소에서 멀어져 있을 것을 권유하며 영화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멀리 떠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OP는 자신들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소니영화사에서 훔친 데이터 파일도 공개했다. 이번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해킹 그룹의 협박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킹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나 다른 국가가 있는지에는 언급을 거부했다.

'인터뷰'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터뷰 기회를 잡은 미국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김정은 암살 지령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다.

소니영화사는 세계 63개국에서 이 영화를 선보이기로 하고 18일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 선샤인 영화관에서 초연한 뒤 성탄절인 이달 25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제히 개봉하고 나서 내년 초에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상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정기자

“돈에 얽힌 뒷이야기 듣고 체험하세요”

‘위조화폐 이야기 – 범죄의 재구성展’…국내외 관광객들에 유명 관광코스로

금융가 사람들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장인석 학예연구사

조선왕조실록 속 위폐 사건부터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화폐번호 '77246' 위조지폐 사건까지 예나 지금이나 '위조 화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위조화폐를 주제로 '위조화폐 이야기 범죄의 재구성展'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화폐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11월 말까지 열린다.

한은 화폐박물관의 장인석 학예연구사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조화폐를 손쉽게 감별할 수 있도록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위조 방지 요소와 식별요령을 쉽게 정리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화폐박물관은 지난 2001년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화폐가 갖고 있는 상징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했다.

장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 주요국 화폐에 들어있는 위조방지 장치를 확인하고, 위폐 식별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불법적인 화폐유통을 줄여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조지폐'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

장 학예연구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화폐 위조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조선시대에는 상평통보 위조자 일당이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일제강점기에도 경제 교란 등을 위해 화폐를 위조했다는 사례를 접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에는 5000원권 5만여장을 위조해 8년 동안 전국 소규모 상점 등에서 사용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힌 이른바 '77246'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 학예연구사는 "위폐를 발견했을 때는 일명 '보세요 3원칙' 등 등 요령을 참고하라"고 조언한다.

우선 ① '만져보세요'. 지폐의 전체 모양을 꼼꼼히 살펴보고, 초상과 글자가 오톨오톨하게 인쇄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기울여 보세요'.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색변환 잉크가 나타나 위조지폐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③ '비춰 보세요'. 숨은 그림, 숨은 은선 등이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위폐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신고하고, 위조지폐를 반납해야 한다.

그는 "위조지폐 근절을 위해서는 위폐범에 대한 무거운 처벌 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일반인도 가짜 돈을 잘 식별해 사전에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1년 6월 개관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명 관광코스로도 알려져 있다. 연간 2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화폐박물관을 찾아오고 있다. 화폐박물관은 돈을 주제로 돈의 모든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수많은 화폐와 돈에 얽힌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듣고 체험할 수 있다. 또 화폐박물관 내 한은갤러리에선 한은이 소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미술품도 감상할 수 있다.

화폐박물관 관람시간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료는 무료다. 휴관일은 월요일, 설연휴와 추석연휴, 12월 29일부터 다음해 1월 2일까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의 장인석 학예연구사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들이 위조화폐를 손쉽게 감별할 수 있도록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위조 방지 요소와 식별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사회초년생 위한 ‘미생카드’ 출시

하나카드는 17일 인기 드라마 '미생' 브랜드와 손잡고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미생카드'를 출시했다.

'미생카드'는 신입사원의 직장생활을 다룬 작품인 '미생'의 독자층과 타깃을 맞춰 핵심 고객층도 사회초년생으로 잡았다.

카드사와 드라마 콘텐츠의 제휴로 신용카드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커피와 외식·영화 등 외식문화 업종부터 대중교통과 온라인쇼핑, 여성직장인을 위한 화장품 할인까지 젊은 직장인이 자주 사용하는 필수 업종에서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6000원, 해외겸용 8000원이다. 업종별 5~10% 할인 혜택은 전월실적 30만원이상 고객에게 제공된다.

월 할인 혜택을 모두 챙기는 야무진 직장인이라면 매월 무려 4만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OK캐쉬백 적립과 제휴가맹점에서 자유로운 사용도 가능하다. 커피할인은 커피빈과 카페베네, 할리스, 이디야에서 가능하다.

외식은 파리바게뜨와 아웃백, TGIF, 베니건스, 빕스,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가 할인 대상이다. 영화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이용 가능하며 편의점은 CU와 GS25, 온라인 쇼핑몰은 11번가·G마켓·옥션에서 할인된다. 화장품 할인은 더페이스샵, 에뛰드하우스, 미샤에서 제공한다.

박태희 하나카드 제휴영업팀 팀장은 "사회초년생의 소비 패턴에 꼭 맞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전략상품을 준비하던 중 만화와 드라마 등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생'에 주목하게 됐다"며 "대중문화 대표 콘텐츠와 카드사 간의 실험적인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카드, 그리고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수록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진정한 콜라보인 '미생카드'가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생카드'로 결제한 일시불과 할부 금액의 0.1%는 미생의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의 뜻에 따라 만화 문화 사업 육성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아람기자 ssba1203@

한화생명, 페이스북 10만 돌파

한화생명은 회사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hanwhalife)이 개설 2년여 만에 팬(Fan)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문을 연 이 페이스북은 주 사용자인 20~30대를 겨냥해 직장인들에게 무상으로 택시를 제공하는 '야근택시' 프로모션과 '오늘의 공감캘린더', 따끈어 아이스버킷 챌린지, 불꽃축제 명당자리 소개 등을 진행해 인기를 끌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의 팬이 되어 주신 10만 명 고객의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앞으로도 고객이 보험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1900.16 (-13.97)	코스닥	533.06 (-1.09)
금리	2.17 (+0.04)	환율	1096.00 (+11.30)

1400원대까지 떨어진 휘발유 국제유가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한 알뜰주유소에서 휘발유를 ℓ당 1478원에 판매하고 있다. /뉴시스

카톡으로 택시 부른다 이르면 내년초 출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카카오톡으로 택시를 부르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카카오는 서울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와 '카카오택시'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드로이드와 iOS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될 카카오택시 서비스는 택시 기사와 승객을 간편하게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 또는 지정 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거리 내 택시가 배차된다. 택시 기사들의 회원 등록, 호출 확인을 위한 '기사용'과 택시 호출, 배차 확인을 위한 '승객용' 두 가지로 제공된다.

다음카카오는 "기사용 카카오택시 앱을 먼저 출시해 전국 택시 기사 회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환경이 구축된 후 승객용 앱을 출시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

연금복권520 제181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4조	540563
		2조	422753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126004
4등	100만원	각조	54063
5등	2만원	각조	553
6등	2000원	각조	43, 74
7등	1000원	각조	5, 9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회·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6~9
독자센터 02)721-9861
2005년 5월 31일 정기간행물등록 서울특별시 가00096

"조직원과의 소통이 리더십이죠"

윤호일 남극 세종기지 대장…삼성 사장단에 '원칙' '기본' 강연

삼성그룹 사장단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 점검 강연에 심취했다.

삼성 사장단은 17일 오전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윤호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기후변화연구부장(박사)을 초청해 '극한의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해 경청했다.

윤 박사는 남극 세종기지 대장으로 활약하며 당시 활동에 전념해왔다.

윤 박사는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며 위기 극복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리더는 극한의 상황이나 위기 시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박사는 이어 "세월호 선장은 구명복을 입혀서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안에 있게 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기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리더였다"고 비판했다.

남극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동료들의 생명을 잃는다고 윤 박사는 힘줘 말했다.

삼성그룹의 위기 관리 능력과 리더십은 합격점이라는 게 윤박사의 평가다.

그는 "삼성은 최근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의 다운사이징으로 위기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방향과 속도 측면에서 기본에 충실한 리더십"이라며 "최악의 위기를 가정하고 전략회의를 여는 점 등 빨리 내려놓는 게 삼성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박사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다.

그는 "비전, 자금동원 능력, 경영철학 등은 리더십의 본질이 아니다. 조직원들을 진정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원을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윤 박사는 강연 후반에 삼성 사장단 회의를 남극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삼성 경영진이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려면 극한의 환경을 체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요지다.

그는 "(남극과 같은 곳에서) 회의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귀띔했다.

/박상훈기자 park@metroseoul.co.kr

텅 빈 담배 판매대 내년도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6개월새 29조↑

9월말 기준 538조원…3월말 대비 6% 증가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시행령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 3분기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38조원으로 6개월새 29조원 늘었다. 유보율은 1734%로 55%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10대 그룹의 현금성자산도 148조원에서 153조원으로 5조원 늘었다.

17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10대 그룹 8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3분기말 연결기준 사내유보금은 537조8000억원으로 6개월전인 1분기말 508조7000억원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보율은 1679.1%에서 1733.6%로 54.5%포인트 높아졌다.

10대 그룹 중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으로 196조8000억원이었다. 1분기 182조4000억원에 비해 14조4000억원(7.5%) 늘었다.

이중 삼성전자 유보금이 168조6000억원으로 1분기말 158조4000억원보다 10조2000억원(6.5%)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24조5000억원으로 2위였고 1분기에 비해 8조6000억원(7.4%) 늘었다. 이어 SK그룹과 LG그룹이 58조8000억원과 48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SK와 LG의 유보금은 각각 3조8000억원(6.8%)과 2조5000억원(5.6%) 증가했다.

포스코그룹은 44조9000억원(증가율 1.1%)으로 5위였고, 롯데그룹(35조6000억원, 3%), 현대중공업그룹(17조2000억원, -11.6%), GS그룹(10조4000억원, 5.8%)도 10조원 이상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었다.

유보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롯데로 5525.9%였으며 1분기(5365.2%)보다 160.6%포인트 높아졌다. 삼성(4431.2%)과 포스코(3591.2%)는 3000% 이상으로 2~3위를, 현대중공업(2901.2%)과 현대차(2067%)는 2000% 이상으로 4~5위에 올랐다. 이어 GS(903.3%), SK(839.1%), LG(677.4%), 한화(492.5%) 순이었다.

/김태균기자 ksh@

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견인차 기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넘어 지역 전략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310개사와 대학생 예비창업자 300명의 응답으로 진행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식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82.5%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벤처·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담당해야 할 역할로 지역 전략산업 발굴·육성 지원(36.4%)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뒤를 이어 창업지원 시설과 인프라 구축(27.7%), 창의인재 육성과 창조문화 확산(24.1%)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창업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응답비율(13.1%)이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 모두 물리적인 창업 인프라 확충만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왜그워이 이경수 대표는 "입주기업들과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검증된 회계·세무·법률 분야 등의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협력해 신시장을 개척한 대표 모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박상훈기자 park@

100% 발효원액 그대로
물 타지 않는 맥주
클라우드
Kloud
Kloud
물을 타지 않는 ORIGINAL GRAVITY공법의

은행들 스마트뱅킹 고객잡기 총력전

'핀테크 사업부' 신설·'S뱅크미니' 개편 등

시중은행들이 스마트뱅킹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부적으로 스마트금융 역량을 강화한 데 이어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해 고객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조직개편과 더불어 스마트금융사업단 내 '핀테크 사업부'를 신설, 스마트금융 강화를 대외적으로 선언했다. 핀테크 사업부에서는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문가는 물론 IT 전문인력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은 최근 스마트뱅킹 메인화면을 개편하고 '나만의 스마트뱅킹', '돋보기 이체', '금융센터'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만의 스마트뱅킹'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이미지나 문구를 스마트뱅킹 실행 과정에서 표시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악성앱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돋보기 이체'는 예금을 이체할 때 글자를 확대해 주는 서비스다. '금융센터'에서는 금융상품을 조회하거나 신규가입을 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스마트뱅킹을 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글자의 크기를 키웠으며, 기존 지로일부의 통합지방세 납부만 가능하던 공과금메뉴를 확대해 국세, 보험료 등의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신한S뱅크미니'를 전면 개편해 중장년층 및 외국인 고객의 스마트뱅킹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거래 프로세스 단축을 통한 편리성 증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업그레이드 ▲중장년층 및 외국인 고객의 스마트뱅킹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신한S뱅크미니'는 주로 쓰는 기능을 미리 설정해 애플리케이션 실행시 설정된 기능으로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고객은 이전에 로그인한 인증서를 자동 세팅해 계좌조회 프로세스가 1단계로 단축되는 편리성을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스마트뱅킹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스마트금융 서비스인 'IBK 원뱅킹'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IBK 원뱅킹' 첫 이용고객 중 460명을 추첨해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권(10명)과 파리바게뜨 케이크 교환권(50명), CU편의점 5000원 기프티콘(400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웹(m.ibk.co.kr)에서 진행되는 퀴즈의 정답을 맞힌 고객 100명에게 엔제리너스·탐앤탐스 커피 기프티콘을 나눠준다.

우리은행은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시 자동으로 적립되는 응모권인 '머니'를 이용해 이벤트에 응모, 당첨시 고객이 받을 경품을 사전에 지정된 불우이웃에게 응모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행운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신한은행 서민 금융지원 1위

국민·기업·우리 3개 은행이 공동 2위

올 한해 서민금융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은행과 씨티은행, 수협 등은 가장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명동 YWCA회관에서 서민금융 유공자 포상식을 열며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활동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 한해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중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금액 비중과 금융사기 피해예방, 구제활동 등 서민금융 지원활동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신한은행은 은행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서민금융 지원활동 전반적인 부문에서 고른 실적을 평가받았으며,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금감원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국민·기업·우리 등 3개 은행은 '양호' 등급을 받아 공동 2위에 오르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외환은행과 씨티은행, 수협 등 3개 은행은 5등급 평가에서 최저인 '저조' 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포상은 신한·KB국민은행장과 서민금융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지원 기자 ⊙ ve0283

KB사랑나눔적금 판매 KB국민은행이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은행이 기부를 하는 'KB사랑나눔적금'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본이율 연2.8%의 3년제 적금으로,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 적립할 수 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겸 국민은행장(왼쪽)과 기부천사 이남림 고객, 방송인 박경림씨. /KB국민은행 제공

자동차보험 4년 만에 1조 적자…중소사 '휘청'

현대하이카 자보 전업사 포기… 악사도 인수사 매각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의 올해 적자가 4년 만에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보 주력 중소사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보를 판매하는 18개 손보사는 올해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9418억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된 것은 물론 지난 2010년 1조5369억원 적자 이후 4년만에 최대치다.

자보 손해율도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손보협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AXA다이렉트, LIG·한화·더케이·롯데·MG손보 등 주요 손보사의 11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3.0%를 기록했다. 통상 손보사의 손익분기점이 70% 중반대인 것을 감안하면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자보 적자가 확대되자 중견업체들은 자보 비중을 축소하면서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중견 손보사인 메리츠화재의 전체 원수보험료 중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지난해 동기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이 밖에도 한화손해보험(15.1%→13.6%), 롯데손해보험(24%→22.8%)로 줄였다.

반면 자보 비중이 80% 이상인 악사(AXA)다이렉트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강화, 보험료 인상 등 다양한 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악사는 최근 3년간 530억원 규모의 증자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13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5월 인수한 에르고다음다이렉트도 올 7월 BNP파리바카디프손보에 매각됐다.

더케이손보의 경우 대주주인 교직원공제회의 300억원 증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이카다이렉트는 지난 3월 자보 전업사에서 손보 전업사로 사명을 바꾸고 운전자보험을 내놓는 등 자구책에도 올 상반기 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이들 3개사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악사와 하이카다이렉트는 9월 말 기준 RBC비율이 각각 130.4%, 147.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미치지 못했다.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퇴출된다.

/김보라기자 kbr640@

롯데카드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롯데카드는 17일 국내 대형 온라인몰에서 클릭 한번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클릭(Oneclick)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는 회원이 처음 1회 결제정보 등록만 하면 국내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몰에서 로그인 사 추가 인증절차와 금액제한 없이 결제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과 모바일 모두 원클릭 결제가 가능한 곳은 롯데그룹사 온라인 몰(롯데닷컴·롯데아이몰·엘롯데·롯데인터넷면세점·롯데부산인터넷면세점·롯데마트몰·롯데슈퍼)과 G마켓·옥션·11번가·CJmall·GS SHOP·현대H몰·신세계몰·AK몰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15개사다.

회원이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은 중소형 온라인몰이나 비회원 구매의 경우 간편결제 전용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만 하면 결제할 수 있다.

보안 시스템도 구축됐다.

특히 '온라인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eFDS)'을 고도화해 과거 범죄이력 IP정보와 부정사용 거래패턴을 이용해 부정사고 징후 발생 시 ARS 추가인증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박지원기자

한국증시 파급여파 초미 관심

금융당국, 영향 제한적· 루블화 폭락 여부 주시

Issue & View
러시아발 금융 위기

/김현정기자 kjk.nl@metroseoul.co.kr

러시아 경제가 공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렸다. 최근 국내 증시가 잠종 1900선 붕괴를 겪은 상황에서 러시아발 위기로 인해 외국인들의 주가 자금 이탈을 촉발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당국은 한국의 실물경제나 금융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크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러시아발 금융위기는 저유가에서 촉발됐다.

러시아의 국가 수입 절반을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락은 러시아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악재로 작용한다.

16일 러시아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환율은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 20% 넘게 하락했다. 연초대비 루블화 가치가 2배 넘게 곤두박질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시장의 투매와 투매 분위기를 막기 위해 16일 기준금리를 연 17%로 6.5%포인트나 한꺼번에 인상하는 파격 조치를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유가 하락은 러시아를 넘어 원유국과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신흥국에도 위기 요인이다. 원유수출국인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보다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러시아 외환시장으로 인해 1998년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러시아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다.

러시아 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하면 글로벌 증시에서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또 다시 자금 이탈 행렬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면밀한 모니터링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러시아의 익스포저 비중이 미미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루블화 폭락에 따른 디폴트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수출입 은행, 우리은행 등 11개 국내 금융기관이 러시아에 제공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3억6000만 달러(약 1조4704억원)로 전체 대외여신 1083억4000만 달러의 1.3%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역시 러시아발 직접적인 금융 불안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간접 경로를 통한 파급 효과를 점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주캐피탈 '따뜻한 손편지' 이벤트

아주캐피탈은 연말을 맞아 '아주 따뜻한 손편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아주캐피탈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ajucapital)에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가족, 연인, 친구 등 대상과 선물을 정하고 메시지를 작성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참가자 중 100명을 선발해 메시지 내용에게 캘리그래피로 쓴 손편지를 전달하고 당첨자 중 5명은 추첨해 가족, 연인, 친구를 위한 스페셜 기프트도 함께 전달한다.

스페셜 선물로는 몽블랑 지갑, 조말론 디퓨저, 구스티온 이불, 아이패드미니3 등이 준비됐다. 당첨자 100명에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허니버터칩도 증정한다.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의 사연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가족, 연인, 친구에게 메시지로 전송될 예정이다.

아주캐피탈 관계자는 "아주 따뜻한 손편지 이벤트는 고객들에게 연말연시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우투·NH증권 합병 승인… 31일 출범

우리투자증권은 17일 오전 9시부터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NH농협증권과 합병안을 승인했다.

주총은 그러나 우리투자증권 노조가 합병 승안 반대를 위해 주총장에 참석해 1시간 40여 분만에 끝났다.

당초 노조는 전체 조합원이 주총 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각 부서의 노조 대표인 분회장만 참석하는 대의원대회로 변경했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간 합병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왔으나 최근 노사간 임단협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노조 측은 사측이 임금협상에 대한 합의를 미루고 있어 합병 반대 투쟁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우리투자증권 노조 측은 "근본적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NH농협증권이 기관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합병하면 주주가치가 떨어지고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투자증권 사측에서는 합병이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이므로 노조의 반대는 고유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 법인은 9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 44조원, 자기자본 4조4000억원 등의 창사 40여 년 만에 국내 1위 초대형증권사로 변신한다. NH농협증권이 올해 2차례의 기관 경고를 받았으나, 합병 법인이 헤지펀드운용업 인가 등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영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합병 법인은 이달 31일 공식 출범한다.

/유현민기자

KB금융, LIG손보 인수 24일 승인 예상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를 연내에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KB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긴급점검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안도 마련된 만큼, 내주 2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수 승인을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KB사태 책임의 한 축이었던 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들이 내년 3월 주주총회때 물러나고,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감독총괄국과 일반은행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팀을 꾸려 2주에 걸쳐 KB금융지주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바 있다.

KB금융은 교수 중심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지난주 당국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KB금융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세밀히 점검해 추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승인은 지난 8월 승인심사 요청 후 4개월여 만에 매듭될 전망이다.

앞서 KB금융지주는 지난 6월 인수경쟁 끝에 LIG손보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LIG그룹과 LIG손보의 지분 19.47%를 685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전자·통신·포털업계 2014년 주요 이슈

2014년 IT 전자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기를 보냈다.

전자산업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 간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생존 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한때 벤처 성공신화로 꼽히던 기업 중에는 살아남지 못하고 무너지는 곳도 있었다. 이동통신사로 대표되는 IT산업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반면 모바일 SNS 이용자 급증에 따라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이에 올 한해 산업 분야별 주목받은 내용을 정리해 본다.

/양성운·이정필·한영훈·정혜연기자

◆ PDP 지고 LCD-OLED로

삼성과 LG가 PDP 사업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LCD와 OLED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 세계 TV 시장에서 PDP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시장 자체가 존폐 갈림길에 놓여 있다.

현재 세계 TV 시장을 리드하는 디스플레이는 LCD로 커브드 곡면에서부터 UHD 등 다양한 제품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 받고 있는 OLED는 수율이 개선돼 패널 원가가 떨어지면서 대중화에 한발 다가섰다.

◆ 모뉴엘·팬택 벤처 신화 무너지나

'벤처 신화'를 일궈낸 두 중견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충격을 줬다.

매출액 1조를 넘겼던 모뉴엘은 분식회계·위장수출 로비 등으로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받아 초대형 사기극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달 초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난달 1차 매각 입찰이 유찰된 팬택은 현재 '반값 스마트폰'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2차 매각은 재추진해 회생을 노리고 있다.

◆ LG전자 G3 놀라운 효과

LG전자가 올해 'G3'로 부활을 알렸다. 지난 5월 출시된 G3는 LG전자의 혁신성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질주했다.

지난 3분기에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LG의 분기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 효자상품으로 부상한 G3는 출시 만 1년이 되기 전에 1000만대 판매, 일명 '텐밀리언셀러' 등극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이통사 잇따른 악재에 한숨

올해 3월 KT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98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검찰은 KT가 해킹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은 3월 20일 오후 6시께 통신장애를 일으켜 6시간 가량 음성 통화 및 데이터 송수신에 불편을 겪었다. 당시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은 발빠른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에 나섰다. 또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논란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다.

◆ 단통법 본격 시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10월 1일 본격 시행됐다. 시행 초기 보조금이 줄어 시장 침체 상황이 이어졌고, 불법 보조금 행위까지 다시 발생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단통법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 시행 2달여가 지나면서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및 이통사의 지원금 확대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선 이 법의 개정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LG 유플러스 사상 첫 아이폰 도입

10월 31일 아이폰6가 국내 시장에 출시되면서 또다시 붐을 일으켰다. 특히 이번엔 LG유플러스가 사상 처음으로 아이폰을 도입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반면 이통3사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에 과징금 각 8억원, 22개 유통점에 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IT 공룡' 다음카카오 출범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톡으로 급성장한 카카오가 10월 1일 다음카카오로 출범했다.

원조 포털과 모바일 공룡의 전략적 합병인 셈이다.

시가총액 10조원대로 코스닥 최대 기업으로 발돋움한 다음카카오는 최세훈·이석우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을 지향하는 다음카카오는 내년에 대대적인 모바일 사업 확장에 나선다.

◆ 사이버 검열 논란과 텔레그램

업계 1위 카카오톡이 검찰에 이용자 대화내역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신변에 불안을 느낀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탔다.

결국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는 대이용자 사과와 함께 '감청 수사 불응' 입장을 밝혀 현행법 거부 파문을 일으켰다. 사이버 검열 진통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Telegram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연말 소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멤버십포인트가 매년 12월 31일 소멸되는것을 상징하듯 17일 서울의 한 백화점내 디지털 전문점의 불 밝힌 간판 앞을 고객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다. KT 가입자는 가입일 기준으로 2년 후 포인트가 소멸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다. /뉴시스

"온라인 게임 활기 기대" 다음게임 '검은 사막' 서비스

다음게임의 MMORPG 기대작 '검은사막'이 17일 정식 공개 서비스(OBT)에 들어갔다.

다음게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은사막 OBT 운영 방식 등을 공개했다. 포털 다음 아이디를 가진 만 18세 이용자라면 누구나 검은 사막을 플레이할 수 있다.

검은 사막은 김대일 프로듀서가 설립한 펄어비스에서 제작 중인 MMORPG다. 총 개발 기간 4년이 소요된 검은 사막은 뛰어난 타격감과 액션으로 비공개 테스트(CBT) 내내 화제를 모았다.

지난 12월 시작된 캐릭터 생성 이벤트에서는 4일만에 6개 서버를 모두 채우는 30만개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효용을 얻었다. 다음게임은 검은 사막 대중화를 위해 PC방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000여개 다음게임 가맹 PC방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홍성주 다음게임 대표는 "검은 사막이 침체된 PC 온라인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윤정기자

폭스바겐 '신형 제타'로 고속질주 기대

내외관 스타일 바꾸고 편의장비 보강 뛰어난 연비와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

국내 수입차시장 인기 브랜드로 자리 잡은 폭스바겐이 신형 제타로 2014년 신차 라인업을 완성했다.

제타의 등장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큰 인기가 없었던 3000만~4000만원대 세단 시장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 시장은 폭스바겐 골프를 중심으로 한 해치백 모델이 인기를 끌었다. 세단은 주로 5000만원 이상의 가격대에서 인기 모델이 형성되곤 했다.

폭스바겐 제타는 국내에서 2006년 처음 선보였으며 2011년 6세대 모델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올해에도 11월까지 3294대가 판매되며 동급 경쟁자를 압도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아우디 A3는 1285대가 판매됐으며, 메르세데스 벤츠 CLA는 1114대, 포드 포커스는 371대가 팔렸다.

제타는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 1일 신형 모델로 거듭났다. 풀 모델 체인지에 버금가는 디자인 변경과 기술 혁신이 신형 제타 변신의 포인트다. 바이 제논 헤드라이트와 LED 후미등으로 앞뒤 인상을 좀 더 또렷하게 만들었으며 범퍼도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코너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비추는 동적 코너링 라이트는 야간 주행 안전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실내 역시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스포티한 튜브 모양의 새로운 엔스트루먼트 ▲나기능 컬러 디스플레이 ▲차세대 다기능 스티어링 휠 ▲중앙 콘솔의 새로운 액센트 장식 ▲우아한 광택의 블랙 컬러로 장식된 기어 레버 주변부 ▲클리마트로닉 컨트롤에 적용된 새로운 크롬 액센트 ▲새롭게 디자인된 에어 노즐 컨트롤 ▲무드등(실내 도어 핸들과 발 밑 공간 라이트) ▲시트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새로운 패브릭 색상과 디자인 등이 그것이다.

엔진 라인업은 2.0 TDI 110마력과 150마력 두 가지를 갖췄다. 기존에 있던 105마력 1.6 TDI 엔진을 없앤 대신, 110마력 2.0 TDI 엔진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

150마력 제타 2.0 TDI 블루모션 프리미엄 모델에 탑재되는 엔진은 연료효율성과 친환경성에서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환경규제라는 유럽의 '유로6'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에서 적용될 "LEV3" 배출가스 기준 역시 충족시킨다. 이전 세대의 엔진과 비교하면 출력은 10마력이 더 높아졌지만 연료 소모는 6% 줄었다. 6단 DSG 변속기와 결합되어 15.5km/ℓ(도심13.8/고속 18.1)의 연비를 나타낸다.

110마력의 블루모션 모델은 7단 DSG 변속기와 조화를 이뤄 도심 14.4, 고속 19.4, 복합 16.3km/ℓ의 뛰어난 연비를 자랑한다. 최대토크는 25.5kg·m이고 최고시속은 197km다.

제타의 가격은 3150만~3650만원으로, 수입차 중에는 저렴한 편이다. 그러면서도 중형차에 버금가는 넓은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갖췄으며 동급 국산차에서 보기 힘든 뛰어난 연비를 자랑한다.

1979년 처음 출시된 제타는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400만대를 넘긴 인기차종이다. 2013년에 전 세계에서 92만5000대가 팔렸으며 폭스바겐의 미국 판매 모델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새롭게 단장한 신형 제타는 이러한 인기를 이어받아 2015년에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균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중소개발사 위한 '협동조합' 지원

NHN엔터, B2B 솔루션 '토스트 클라우드' 출시

게임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플랫폼을 동시 제시하는 솔루션이 나왔다.

NHN엔터테인먼트는 17일 판교 본사에서 기업 대상(B2B) 게임 솔루션 '토스트 클라우드' 출시회를 열고 주요 상품인 '토스트 애널리틱스&프로모션'을 소개했다. 토스트는 NHN엔터테인먼트의 모바일 게임 브랜드다.

토스트 클라우드는 한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게임에서 벌어지는 매출 증감, 이용자 트래픽 추이, 제휴 프로모션 등을 실시간 분석해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게임별 매출 추이는 어떠한지, 아이템 결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신규 가입자는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다양한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제시한다. 해킹률, 실행빈도와 해킹툴 유형별 분포 등 보안 지표도 제시한다.

홍성봉(42) NHN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개발실장은 "모든 분석 결과는 담당자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색깔과 그래프 등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게임 서비스 상태가 양호하면 초록색, 주의가 필요하면 주황색, 나쁜 상황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라며 "과거와 현재 서비스의 데이터 분석뿐 아니라 미래 전망도 예측해 제시한다. 이용자 만족도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주간별, 월별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하는지 알려주는 기능은 토스트 클라우드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토스트 클라우드는 여러 게임들의 제휴 마케팅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NHN엔터테인먼트는 모바일 게임 '포코팡'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파루 사가', '쿠키런 은갈문실' 등의 다른 게임을 노출해 설치를 유도하고 아이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

홍성봉 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매출 좋은 게임과 제휴 마케팅을 벌이고 싶지만 파트너 찾기를 어려워 한다. 토스트 클라우드가 중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일종의 협동조합 개념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합산규제·클라우드법, 해 넘길 듯

'정윤회 문건' 파문 발목 미방위 법안소위 파행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과 클라우드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에 발목을 잡은 것은 '정윤회 문건' 파문이 원인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비선실세 논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과 클라우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미방위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자체가 연기됐다. 분위기 상으로는 사실상 합산규제나 클라우드 발전법 등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아직 여야 간 협상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경우 올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합산규제 법안은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모두 동일 서비스로 보고 시장점유율을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법안 통과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KT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만 법안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현재 시장점유율 28%를 넘어선 KT는 단기간 내 가입자 확보에 주력, 시장점유율 33% 넘기기에 나설 전망이다.

법안 처리 이전에 시장점유율 33%를 넘기면 결국 합산규제 법안 내 점유율 규제 상한을 올리거나 법안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KT의 유료방송 덤핑판매 논란도 있었다. KT 동부산지사에서 관할 지역 일부 아파트에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월 이용료를 6600원으로 할인해주고 집안 내 추가 연결하는 TV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사장 명의의 제안서가 발송됐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KT의 유료방송 덤핑판매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클라우드 발전법 역시 연내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 통과를 다소 미루게 됐다.

당초 국가정보원 개입 우려 등으로 야당 및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온 클라우드 발전법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원 개입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클라우드 산업 진흥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됐다.

/이재영기자 ljy0403@

건설사 최고경영자, CFO 전성시대

경기침체 돌파구 꼼꼼한 재무통 발탁 위기관리 능력 탁월, 적자에서 흑자로

계속된 경기침체로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의 최고경영자(CEO)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적 악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내실 강화 등이 건설사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살림살이를 책임지던 CFO가 CEO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16일 현대산업개발은 김재식 CFO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영업본부장, 법무감사실장 등을 거쳐 2012년 12월 신설된 CFO직을 맡은 지 2년 만이다.

김재식 사장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흑자기업으로 돌아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47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매출 1조1281억원, 영업이익 569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영업이익률도 4.62%로 향상됐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김 신임 사장은 CFO 부사장으로서 올 3월 각자 대표로 선임된 이후 조기 흑자전환으로 이끌며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며 "그를 전반적 미래성장 전략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돼 9개월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식 현대산업개발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황태현 포스코건설 대표

GS건설의 임병용 대표이사도 앞서 지난 2월 단행된 GS그룹 임원 인사에서 사장직을 유임했다.

GS건설은 지난해 6월 허명수 전 사장이 경영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자 당시 CFO였던 임병용 사장을 새로운 CEO로 선임했다. 1991년 LG구조조정본부에 입사한 뒤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업계 대표 재무통이다.

덕분에 작년 1조원에 가까운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GS건설은 올 3분기 매출 2조3046억원, 영업이익 238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포스코건설도 올 3월부터 CFO 출신의 황태현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황 사장은 포스코 재무담당 상무이사, 재무담당 전무 등을 거친 정통 재무 전문가다.

포스코건설은 "황태현 사장은 포스코 재무실장과 포스코건설 CFO를 역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됐다"며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황 사장은 특히 1999년부터 포스코의 재무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IR 기조를 세웠다. 또 2000년대 초 주식시장에서 포스코를 대표적 우량주로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포스코건설로서는 CEO로 적임자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건설사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 출신 CEO가 많았다"며 "오랜 불황과 함께 기업의 위기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안정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CFO가 선호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csh0120@metroseoul.co.kr

대우건설 '사랑의 연탄 나눔' 대우건설은 17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마을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중 3000장을 30가구에 직접 배달하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우건설 제공

3년간 광교신도시 전세값 126%↑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교신도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는 734만원으로 3년 전 577만원보다 27.6% 상승했다.

특히 광교신도시가 444만원에서 1005만원으로 126.4%나 뛰었다. 전용면적 84㎡(33평형) 기준으로 약 1억8500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2011년 입주가 몰리면서 전세가가 낮게 형성됐던 것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어 김포 한강신도시가 54.7%(364만→563만원), 경기 양평군 49.3%(286만→427만원), 판교신도시 49.1%(1021만→1522만원), 인천 연수구 42.2%(405만→576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3.3㎡당 842만원에서 1036만원으로 3년간 평균 23.0% 상승했다. 성동구가 34.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진·동작구(28.5%), 서초구(27.7%), 금천구(27.2%) 등이 5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전세가 고공행진 변사이의

전셋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세가 상승세가 거센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열풍도 거셌다.

최근 광교신도시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광교'는 1순위 청약에서만 1만6653개의 통장이 몰렸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하반기 공급된 'e편한세상 캐널시티'와 '한강신도시3차 푸르지오' 2개 단지도 연달아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 김포는 그동안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경기도 양평군도 마찬가지. 올 들어 양평에서 분양된 '한신휴플러스'와 '양평 용문 코아루'가 순위에서 청약을 마무리 지었다. 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는 2년여 만에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가 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매매로 전환하거나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눈길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많아졌다"며 "이에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백선욱기자

최근 3년간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 상위 10위 지역 (단위: 만원)

순위	지역	2011년	2014년	증가율
1	광교신도시	444	1005	126.4%
2	김포 한강신도시	364	563	54.7%
3	경기 양평군	286	427	49.3%
4	판교신도시	1021	1522	49.1%
5	인천 연수구	405	576	42.2%
6	경기 안성시	293	403	37.6%
7	파주 운정신도시	385	534	38.7%
8	경기 김포시	344	473	37.1%
9	인천 서구	310	418	34.9%
10	서울 성동구	848	1141	34.6%

주택기금 임대주택 1만8000가구 늘어

내년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올해보다 1만8000가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이 최근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주택기금 조성·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14.3%(6조6315억원) 늘어난 53조1443억원이다.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법정부담금 수입 등에 따른 자체 재원이 올해보다 1조4453억원 늘어난 16조488억원 ▲청약저축 수입과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 내부수입이 올해보다 5조179억원 증가한 16조8420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주로 이들 두 항목에서 수입이 늘면서 전체적인 조성·운용 규모가 커지게 됐다.

이 가운데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는 15조5664억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쓰일 19조4041억원을 제외한 18조1738억원이 임대주택 건설 등 각종 기금 사업에 쓰인다.

항목별로 세분하면 ▲임대주택 공급에 5조7485억원 ▲분양주택 공급에 8363억원 ▲수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9조5660억원 ▲기타(이자 상환 등)에 2조523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13만가구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건설임대주택이 8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이 5만가구다. 각각 올해보다 6000가구, 1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공공분양주택도 올해보다 5000가구 늘어난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난 등에 대한 처방으로 내년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보다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금운용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두탁기자 kimdt@

Celebrity Season Individual

올해 와인 키워드는 'C.S.I' '유명인·계절·개인'을 반영

대부분의 주류 제품이 장기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와인류다. 이 때문에 와인 업계에서는 올해를 '제2의 전성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와인 수입 전문 업체인 레뱅드매일은 올해 와인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를 미국의 수사드라마인 'CSI'를 연상케 하는 C.S.I(Celebrity, Season, Individual)로 정리했다.

◆셀러브리티(Celebrity·유명인)

201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좋아하는 '샤또 달보'는 '히딩크 와인'이라는 애명으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올해 와인 시장에서는 유달리 잦았던 해외 국빈의 방한이 이런 '연상 작용'을 자극했다. GD의 '와인'으로 소개된 명사의 와인들은 접하기 어려운 술이라는 이미지를 깨고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다가왔다.

8월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서는 '몬테스 알파'가 '교황의 와인'으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7월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 때 국빈 만찬주로 선정됐던 '미쉘 르로이 클레르 드 빈느'도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다.

◆시즌(Season·계절)

와인 하면 보통 고급스런 자리에서 값을 맛을 즐기는 술을 떠오른다. 하지만 최근 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해 가정에서 부담 없이 와인을 즐기는 트렌드가 크게 확산됐다. 와인 업계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날씨·계절·국제 행사 등 다양한 시즌 이슈마다 특성화되고 이색적인 와인을 한정 출시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인디비듀얼(Individual·개인)

2014년의 메가 트렌드는 단연 '1인 가구'·'싱글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들을 겨냥한 이른바 'SPA브랜드'의 출시는 와인 시장에서도 이루어졌다. 와인 업계에서는 1~2인이 즐길 수 있는 저용량 캐주얼 와인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싱글족' 시장 선점에 나섰다.

/정해영기자

주류업계 "연말 특수를 잡아라"

신제품 출시·콘서트 개최 등 이벤트 풍성

왼쪽부터 하이네켄 디스페라도스, 보해 잎새주 크리스마스 한정판, 레뱅드매일 크리스마스 스페셜 패키지, 호세쿠엘보 '실버 윈터 패키지', 헨드릭스 진 헨드릭스 드림스케이프

주류 업체들에게 12월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겹치는 시기로 여름 휴가 기간과 함께 최대 대목으로 손꼽힌다.

이 기간 판매량이 집중되면서 각 업체들은 각종 이벤트와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자존심을 건 마케팅 전쟁을 벌인다.

먼저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브랜드 페이지에 가수 아이유와 참이슬을 협업한 '슈이슬슬 아이유 타로점'을 오픈했다. 타로 여신으로 변신한 아이유가 직접 등장해 2015년 운세와 함께 덕담을 전할 수 있도록 꾸몄다. 오는 27일 서울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참이슬 연말 페스티벌'에서는 아이유 타로점을 포함해 아이유 미니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돼 있다.

오비맥주는 맥주 브랜드 '카스 후레쉬'를 앞세워 19일 홍대 클럽 엠투(M2)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카스 톡 산타클로스 파티'를 연다.

럼 브랜드 '바카디'는 오는 25일 대림미술관에서 주최하고 대림미술관과 파스텔뮤직이 주관하는 '2014 크리스마스 파티 사랑과 단상'을 공식 후원한다. 행사에 참가하는 성인들에게는 웰컴 칵테일 오리지널 쿠바리브레와 오리지널 바카디 모히토, 바카디 빅애플&진저 중 1잔을 제공할 예정이다.

멕시코 대표 맥주 '코로나'는 보광 휘닉스파크에 오는 20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코로나 존'을 운영한다. 또 20일부터 1월 17일 사이 매주 토요일 밤 9시 해당 존에서는 '코로나 라틴 파티'도 연다.

이런 가운데 보해양조가 각종 술자리가 잦아지는 12월 한 달간 상대방을 배려하고 술을 강요하지 않는 '민주주의적 술자리 조성'을 위한 '정신줄' 캠페인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각종 이벤트 행사 이 외에 주류 신제품 출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이네켄 코리아는 세계 최초로 데킬라로 맛을 더한 맥주 '데스페라도스'의 국내 출시를 통해 의사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섰다.

보해양조는 지난 11월 '잎새주 크리스마스 한정판'을 선보였다. 잎새주의 글자에 크리스마스의 상징 중 하나인 루돌프의 빨간 코와 뿔을 접목해 보는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위트있게 디자인했다.

와인수입전문기업 레뱅드매일도 크리스마스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했다. 모임과 파티가 많은 연말 시즌에 잘 어울리는 슈바르달러 글루바인 '봉봉' 앨리 와인 브랜드 3종을 엄선해 구성했다.

데킬라 브랜드 '호세쿠엘보'는 연말 파티 시즌을 맞아 '호세쿠엘보 에스페셜 실버'와 전용 통글래스, 스프라이트 등으로 구성된 '실버 윈터 패키지'를 내놨다.

'헨드릭스 진'도 240세트 한정의 드림스케이프 선물 패키지를 선보였다.

/정해영기자

강강술래 '올 히트상품' 40% 할인

육포·곰탕·떡갈비 파격가 도서 증정 릴레이 이벤트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올 한해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은 인기상품 파격가 행사를 19일부터 31일까지 벌인다.

먼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박스(800㎖ 6팩·18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박스(350㎖·10팩·20인분) 3만7300원, 갈비맛 쇠고기 육포박스(50g 10봉) 3만60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또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찹찹한우떡갈비(360g×3박스 3만6000원)'와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1600원)도 40% 할인가로 선보인다.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도 육포 선물세트(50g·6봉·2만2000원)와 찹찹한우 떡갈비(360g 1만2000원),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7200원)를 각각 40% 할인가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도서출판 갈벗의 '농부가 된 도시사람들'과 '우주비행사의 지구생활 안내서'도 선물한다.

'농부가 된 도시사람들'은 귀농 5년차 새내기 농부부터 20년차 베테랑 농부까지 개성만점 7인 7색의 농부들이 귀농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지구생활 안내서'는 우주비행사 크리스 해드필드가 9살에 품은 우주비행사라는 꿈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도전의 여정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정해영기자

물 타지 않는 맥주의 자존심 '클라우드'

출시 6개월만에 6천만 병 판매…'토종' 우수성 알릴 것

2014 히트 상품

올해 4월 롯데주류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클라우드(Kloud) 맥주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맥주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제품은 한국을 대표하는 맥주를 선보이기 위해 롯데주류가 한국을 의미하는 Korea의 'K'와 풍부한 맥주 거품을 형상화한 구름의 영문 "Cloud" 단어를 결합해 브랜드명에 담았다.

이 맥주에 적용된 '그래비티(Original Gravity)' 공법은 맥주 발효 원액에 물을 추가로 타지 않는 방식으로 맥주 본연의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클라우드'는 100% 맥아만을 사용하는 올 몰트 맥주(All Malt Beer)로, 유럽산 최고급 호프를 제조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멀티 호핑 시스템' 방식의 정통 맥주를 지향하는 공법을 통해 차별화된 맥주의 거품과 풍미를 선보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롯데주류는 지난 6월 이후 '물 타지 않는 맥주'라는 제품 콘셉트를 강조한 동영상을 론칭하고 업소 인점과 업소 내 판촉행사를 강화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런 롯데주류의 마케팅 활동에 주류 도매사들의 반응도 뜨거워 출시 2개월만에 1000 곳이 넘는 주류 도매사에서 '클라우드'를 주문해 수도권의 경우 99%의 입점율을 기록했다. 구매 후 만족도도 높아 2회 이상 발주한 주류 도매사들도 전체의 90%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호응에 따라 '클라우드'는 출시 6개월만에 6000만 병이라는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클라우드 병을 일렬로 늘려 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5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길이(1만4000㎞)고 20~60세까지의 우리나라 성인 인구를 약 3000만 명 정도로 추산했을 때 1인당 2병씩 마신 셈이다.

회사 측은 지난 7월부터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호텔 월드점 지하 1층에 있던 기존 생맥주 펍(PUB)을 리모델링해 1680㎡ 규모의 클라우드 맥주 전용 홍보관인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을 오픈했다.

/정해영기자

여행하듯 지도 따라 떠나는 쇼핑·기부·문화 행사

15주년 맞은 올리브영 '연말 스토리' 마케팅 호평
할인 이벤트·에코백 판매 등 쇼핑의 즐거움 선사

연말을 맞아 기업들이 다채로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올리브영의 15주년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 15년간 고객들과 함께한 여정을 담아내듯 12월 한 달간 여행을 콘셉트로 한 '뻥뮤 트래블' 마케팅을 진행한다.

12월 시작과 동시에 선보인 이번 캠페인은 고객들이 뜻깊은 여행을 다녀온 듯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행의 목적에 맞는 스토리를 풍성하게 담아냈다. 특히 실제 여행 가이드인 '뻥뮤 트래블 맵'을 기획,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담아 매장 방문 고객들이 좀 더 명미하게 쇼핑하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올리브영 마케팅 담당자는 "론칭 15주년을 기념하며 '감사'와 '여행'이라는 주제로 쇼핑의 즐거움부터 나눔 기부, 문화 행사까지 고객과 함께 성장한 올리브영만의 차별화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볼거리·할인 가득한 쇼핑거리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가득한 쇼핑거리다.

올리브영은 첫 번째 코스인 '메인 스트리트'에서 할인 프로모션과 쿠폰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작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15주년 기념 '뻥뮤 세일'이었다. 뒤 이어 지난 15일부터는 15가지 라이프스타일 혜택을 더한 '뻥뮤 쿠폰 카드' 증정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 선착순 15만명에게 주는 뻥뮤 쿠폰 카드에는 올리브영에서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구매 금액별 할인쿠폰을 비롯해 이브로쉐, 버즈비, 세노비스, 로레알파리 등 입점 브랜드 할인쿠폰, 티빙 영상·CGV에서 사용 가능한 특별한 혜택이 포함돼 있다.

◆쇼핑과 기부 체험을 한 번에

여행의 추억을 보다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 쇼핑은 여행 코스에서 빠질 수 없는 법. 올리브영이 15주년 뻥뮤 트래블의 두 번째 코스로 마련한 기념품은 '에코백'이다.

올리브영이 특별히 선보인 '걸스 에듀케이션 에코백'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다. 전국 매장에서 선착순 2000원에 판매한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CJ그룹이 유네스코와 함께 개발도상국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걸스 에듀케이션' 캠페인에 기부할 계획이다.

올리브영은 소비자들에게 소비가 기부로 이어지는 특별한 경험과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

◆트렌드 리더에게 결락 선물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15주년을 기념해 VIP 고객을 한 자리에 초청하는 문화 행사 '감동 무비 페스티벌'도 마련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5대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CGV 아트하우스가 엄선한 미개봉 신작 영화 관람뿐 아니라 전문 큐레이터가 들려주는 특별한 영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014 올리브영 MAMA 원정대 파견, 생생한 K뷰티 트렌드를 현장에서

올리브영의 15주년 기념 감사 이벤트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음악 축제 현장 참여로까지 이어졌다. 인스타그램 이벤트 참여자 중 선발한 고객을 '2014 올리브영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 원정대'로 파견한 것. 이들은 2박3일간 아시아 최대 음악 축제 '2014 MAMA' 관람, MAMA 행사장 내 올리브영 현장 부스 방문, 프로모션 참여, 홍콩 관광 등의 혜택을 받았다.

올리브영 마케팅 담당자는 "올리브영은 그동안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헬스·뷰티 트렌드를 제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고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쇼핑 놀이터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재권기자 jyp@metroseoul.co.kr

모바일 쇼핑, 낮 '생필품' 밤 '패션 뷰티' 많아

모바일 사용자의 경우 시간대별로 주로 구매하는 품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티몬은 올해 모바일 구매 패턴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모전과 낮 시간대에는 생필품과 여가 활동 상품을,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는 뷰티·패션 등 자신을 위한 쇼핑이 주를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는 생필·식품 구매 비중이 25%로 가장 높았다. 또 근무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여행·레저, 지역 상품이 20~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오후 6~9시까지는 지역 상품이 33%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자정을 넘긴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는 뷰티·패션 상품 매출 비중이 30~36%까지 올라갔다. 이는 낮 시간대(15~18%)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모바일에서 구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간대는 남성의 경우 퇴근 전인 오후 5시, 여성은 점심시간 전 11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간대 모바일에서 남성은 주로 지역상품을, 여성의 경우 생활용품을 구매했다.

한편 최근 2년간 고객 구매 데이터 분석 결과 남성의 모바일 구매 비중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55%로 증가했으며 여성은 70%를 넘어섰다.

모바일 소비 품목도 패션·식품·생활용품에서 여가와 식품 전반의 전 카테고리로 확산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유수정기자 ksj0215@

평균 3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이베이가 세계 10개국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쇼핑 관련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평균 7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평균 3명에게 선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이베이가 10개국 총 1만37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5명', '6~10명'에게 선물한다는 응답이 각각 28%로 가장 많아 평균 7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1050명 응답)은 다례로 '1~2명'(35%), '3~5명'(31%)이라고 답해 평균 3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의 선물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은 배우자와 연인으로 평균 11만3000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10개국 평균인 13만 2000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또 타국에 비해 자녀 보다 부모에게 씀씀이가 컸다.

자녀에게 7만원, 부모에게는 10만1000원, 시댁·처가에는 10만3000원을 각각 계획하고 있었다. 10개국 전체 응답자는 자녀에게 평균 20만원, 부모에게 8만6000원, 시댁·처가에는 7만1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 온라인 구매 방법으로 한국인은 타국에 비해 모바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폰 이용자는 29%로 데스크톱(36%) 다음으로 높았으며 이어 노트북(25%), 아이패드 와 태블릿 PC(9%) 순으로 답했다. /유수정기자

에이스침대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에이스침대는 자사 공식 홈페이지가 '2014 웹어워드 코리아' 기업일반 부문 제조업 분야와 모바일 웹마케팅 부문 브랜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은 올해 새롭게 구축하거나 리뉴얼된 데스크톱 또는 모바일 기반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웹 전문가 2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단이 심사했다.

에이스침대는 PC와 모바일 버전 모두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수정기자

경기 남부 랜드마크 꿈꾼다!

애경, 첫 특급호텔 오픈

애경그룹의 첫 번째 특급호텔이 경기도 수원에 문을 연다.

애경그룹 유통·부동산개발 부문의 수원애경역사(대표 심상보·서광준)는 지난 2012년 12월 착공한 특1급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사진)을 18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3만5000㎡ 규모의 호텔은 지하 3층~지상 9층으로 건설됐으며 스위트룸과 이그제큐티브룸 전용층을 포함해 총 28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전 객실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하며 각종 회의와 세미나, 결혼식 등이 가능한 그랜드 볼룸과 리셉션 홀도 갖췄다. 또 다국적 요리를 오픈 키친으로 제공하는 인터내셔널 뷔페 레스토랑 'The Square'와 와인컬렉션을 즐길 수 있는 'Lobby Bar' 등의 부대시설도 들어섰다.

애경그룹은 이번 호텔 오픈으로 철도역사(수원역)와 백화점(AK플라자 수원점), 그리고 쇼핑몰(AK&)과 호텔(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대형 랜드마크 'AK타운'(연면적 19만4000㎡)을 완성하게 됐다.

애경 관계자는 "하루 30만 명이 오가는 교통 요충지이자 대형상권을 이루는 곳에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을 오픈해 쇼핑과 놀이, 숙박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레저생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AK타운이 경기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따뜻한 겨울여행 즐기세요"

신라스테이 역삼, 고객 위한 패키지 3종 선봬

신라스테이 역삼이 연말을 맞아 따뜻하면서도 신나는 겨울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를 준비했다.

먼저 연인과의 따뜻한 연말여행을 계획한다면 '소 스위트 크리스마스(So Sweet Christmas)' 패키지를 주목하자. 신라호텔의 맛을 담아 '프티 파크뷰'로 불리는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에서 크리스마스 특선 디너를 맛볼 수 있으며 스파클링 와인까지 제공돼 크리스마스의 설렘도 느낄 수 있다. 또 신라호텔의 테디베어 인형 아베다 리미티드 에디션 핸드크림이 포함된 특별한 크리스마스 햄퍼도 증정된다. 패키지는 24일과 25일, 31일 3일간 이용할 수 있다.

친구와의 신나는 겨울 파티를 계획한다면 '레이디스 파티 나잇(Lady's Party night)' 패키지가 어울린다. 스탠다드 객실 1박과 조식 2인, 클럽 옥타곤 입장권 2매로 구성돼 있어 클럽에서 신나게 놀고 호텔로 돌아와 객실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함께 조식까지 즐길 수 있다. 게다가 다음 여행을 위한 특별한 여행 백자도 함께 증정한다. 이 패키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주말에 이용 가능하다.

도심 속 호텔에서의 편안한 1박2일의 쉼을 원한다면 'Gourmet Dining' 패키지가 안성맞춤이다. 카페에서 모닝 뷔페와 디너 뷔페를 즐기며 호텔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으며 취향에서는 신라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코바(Cova)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코바 커피는 이탈리아 밀라노 코바에서 자체적으로 블렌딩하고 커피 장인이 수작업으로 원두를 로스팅한 최고급 커피다. 문의 02)2230-3000·www.shillastay.com

/황재용기자 hesul38@metroseoul.co.kr

겨울방학 최고의 가족 여행지는?

하나투어 추천

연예인들의 가족예능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면서 그들이 여행했던 장소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나투어가 겨울방학 동안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TV속 여행지를 추천한다.

먼저 아직 한국에는 낯선 일본 '돗토리'가 있다. 돗토리는 사막과 같은 모래언덕과 시원한 바다은현, 만화 속 요괴마을 등 놀거리가 가득한 지역이다. 특히 돗토리현 출신 만화가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마을인 '미즈키 시게루 로드'가 색다른 재미를 준다. 또 아오야마 고쇼의 '명탐정 코난'을 주제로 한 코난 박물관과 흰 모래와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가이케 온천'도 빼놓을 수 없다.

'별보다 할배' 방영 후 김성주 민율 부자가 방문해 더욱 친숙해진 대만은 자유여행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대만 최대 담수호인 일월담을 구경한 후 케이블카를 타고 구족문화촌으로 넘어가면 대만 소수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 대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용산사에서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운을 점칠 수 있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인 101타워 역시 대만의 명소로 꼽힌다.

이와 함께 겨울의 캐나다는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놀거리로 가득하나, 로키 밤하늘의 별 감상은 겨울방학 최고의 추억이 되며 재스퍼 국립공원의 애서배스카 빙하 위로 선명하게 등장하는 은하수 또한 흔히 접할 수 없는 광경이다.

/황재용기자

리조트 방학 이벤트 풍성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방학이다. 방학 동안 할 일도 많고 미뤘던 일들도 기다리고 있지만 방학은 설렘으로 먼저 다가오는 법이다.

방학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어줄 전국 리조트들의 다양한 이벤트를 소개한다.

먼저 수도권에 위치한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29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문성 교장과 함께 하는 곤지암 키즈 스키 아카데미(사진)를 선보인다. 담당 강사가 전용 셔틀버스를 타고 어린이 픽업부터 강습, 렌트를 체험 등을 직접 인솔·지도한다.

대명리조트는 오는 31일까지 비발디파크 스키월드에서 '리프트&렌탈' 패키지를 온라인 예약 판매한다. 또 비발디파크에서는 내년 2월까지 스키월드 정상에서 체험과 숙박을 할 수 있는 '스노우 글램핑 &BBQ'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엠블호텔 여수는 겨울 별미를 이용한 '아드리아 크리스마스 특별 디너 뷔페'를 준비했다.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는 겨울축제 '스노우 원더랜드'로 겨울철 놀거리를 제공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내년 1월 11일까지 설악 워터피아에서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신입사원 강소라의 파트너를 찾습니다'를 진행한다. 63스퀘어와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선 크리스마스 전후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63빌딩 59층에 위치한 워킹온더클라우드는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넘이 라스트 선셋' 패키지와 '새해 해맞이' 패키지를 마련했다.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 세계 35개국 150여 곳에서 함께 펼쳐지는 스노우보드인들의 축제 'WORLD SNOWBOARD DAY 2014'가 개최된다. 스노우보더들의 기술과 라이딩 등 화려한 볼거리가 펼쳐지고 고객을 위한 이벤트와 미니게임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리솜리조트에서는 온천여행을 즐길 수 있다. 49℃의 천연 게르마늄 온천수를 사용하는 리솜스파캐슬 천천장에서 온천탕도졸과 워터슬라이드 등 실내의 모든 시설을 만끽할 수 있다. 기와한방탕, 가마금탕 등 20여 개의 다양한 스파탕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할 수 있다. 또 리솜스파캐슬의 사계절 테마파크 캐니멀 듀브라이더에서는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캐니멀'을 만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해 롯데워터파크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가족과 커플을 위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도심 속 패밀리 테마파크인 용산월레이도시도 19일부터 21일까지 '용짱 어린이 기부데이'를 실시한다.

/황재용기자

내년엔 떴다는 말 들을겁니다

1997년 '그녀와의 이별'로 데뷔한 김현정이 스타덤에 오를 수 있던 배경에는 길거리 카세트 테이프 노점상, 일명 '길보드(길거리 빌보드)'의 공이 컸다. 2014년 데뷔 3년차 5인조 걸그룹 EXID(이엑스아이디)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팬이 직접 찍어준 '위아래' 직캠(팬들이 직접 찍은 무대 영상)이 온라인을 강타했고 음원 차트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EXID는 이미 '위아래' 활동을 접고 새 앨범 준비에 몰입한 상태였다. EXID는 '위아래' 무대를 다시 보고 싶다는 팬들의 뜻에 따라 활동 종료 3개월 만에 결국 '강제 컴백'을 했다. 가요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차트역주행 걸그룹

EXID는 2012년 '후즈 댓 걸'로 데뷔했다. 그러나 표절 논란이 휘었고 기존 멤버 3명이 탈퇴했다. 이후 새 멤버 솔지와 혜린을 영입해 현재의 EXID가 됐다. 2012년 발표한 '매일밤' 이후 약 2년 가까이 공백기를 가졌던 EXID는 지난 8월 새 싱글 '위아래'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잠잠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는 EXID가 아니었다. 큰 무대와 작은 무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을 찾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다. 지난 10월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한마음 위문 공연'에서 탄생한 한 편의 직캠은 EXID의 운명을 바꿨다.

일명 'EXID 하니 직캠'으로 불리는 이 영상은 공식 채널에 올라온 뮤직비디오보다 조회수가 높다. 역소문을 탄 '위아래'는 음원 사이트를 역주행하며 정규 컴백한 가수들까지 제치는 기염을 토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얼떨떨하죠. 차트에 우리 팀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게 환상처럼 느껴져요. 행복한데 또 마냥 신나지만은 않더라고요. 다음 앨범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어요." (혜린)

"처음에는 차트에 하루 정도만 머물렀다 사라질 거라 예상했어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김칫국 마시지 말자'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니)

"다음 곡에 대한 부담이 무척 커졌어요. 이번 컴백은 사실 팬들을 위한 이벤트 성이라 다음 앨범 준비를 병행하고 있어요." (LE)

"LE 언니는 스케줄이 끝난 뒤에도 작업실 가서 곡 준비를 하다 올 정도예요." (정화)

◆섹시 콘셉트에 가려진 실력파

정화의 말대로 LE는 작곡 능력에 뛰어난 래핑 실력까지 갖춘 인재다. 그는 최근 엠넷의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로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엠넷 관계자는 LE에 대해 "최근 본 여자 래퍼 중 단연 최고"라고 칭찬한 바 있다. 또 멤버 솔지는 EXID에 합류하기 전 약 20장 가까이 앨범을 낸 여성 R&B 듀오 투엔비로 활동한 바 있다. 그룹 해체 이후 보컬트레이너의 길을 걸었던 솔지는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의 제안으로 EXID의 목소리가 됐다.

"앨범 수로 따지면 원로가수라고 하더라고요(웃음). 사실 많이 지쳐서 가수의 꿈을 접었는데 서른 살이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싶었어요." (솔지)

"사실 투엔비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솔지 언니가 투엔비란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하지만 티는 안냈어요(웃음)." (하니)

섹시 콘셉트의 걸그룹 홍수 속에 '위아래'는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다. 몸에 달라붙는 의상부터 안무까지. 소속사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하니는 "우리는 자수성가 걸그룹"이라고 말했다.

"저희끼리 회의를 많이 해요. 노래는 물론이고 외적인 부분도요. 다이어트도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니라 저희가 알아서 한 거죠. 의상에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됐어요. 헤어스타일도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시안을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요(웃음)." (하니)

"저는 오늘 아침에 직접 앞머리를 잘랐는데 망했어요(웃음)." (혜린)

'위아래'로 차트 역주행한 걸그룹 EXID

활동 중단 후 '직캠'으로 뒤늦게 인기몰이

팬들 성원에 힘입어 음악방송에 '강제컴백'

내년 목표?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 것"

◆골반 춤 이어 다음은?

'위아래' 안무는 직관적이다. '위' '아래' '순진한 척 하는 네 동공' 등 가사에 맞춘 몸동작이 인상적이다. 특히 앞뒤로 흔드는 골반 안무는 매우 자극적이다.

"저는 골반 안무가 무척 마음에 들어요. 골반을 옆으로 흔드는 춤은 이미 있지만 앞뒤로 하는 춤은 없었잖아요. 신선했어요." (하니)

"저는 너무 노골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했어요. 이 춤에 어떻게 우리 색깔을 입힐 수 있을지 고민을 했죠. 사실 섹시 콘셉트를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아 욕 먹을까봐 겁났어요. 또 섹시 콘셉트에 가려져 저희의 또 다른 매력이나 음악을 못 보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한 시름 놓았어요." (정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처럼 차트 역주행 이후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EXID의 내년 목표는 무엇일까.

"오래 쉬었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 바빴으면 좋겠어요. 다만 크리스마스가 아버지 생신이라 늘 미역국을 끓여드렸는데 올해는 스케줄 때문에 못 할 것 같아 죄송해요." (하니)

"연말에 이렇게 바쁜 게 처음이라 기뻐요. 작년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저희끼리 파티를 했거든요." (정화)

"음악방송은 이제 마무리했어요. 이제 다음 노래를 열심히 준비해야죠. 다음 앨범은 아마 꽉 찬 미니앨범이 될 거예요. EXID 노래는 좋은 노래라는 인식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LE)

"시상식에 꼭 참석하고 싶어요. 지상파 3사 시상식이랑 MAMA(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 가고 싶어요." (혜린)

"내년에는 정말 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리매김 하고 싶습니다." (솔지)

/김지민기자 language@metroseoul.co.kr 디자인/원승미

윤도현 대학 강단 선다

세한대 실용음악학과 특강 교수로

가수 윤도현(사진)이 세한대학교 실용음악학과 특강 교수로 강단에 선다.

윤도현은 지난 20여년 동안 몸 담았던 다음기획(현 다컴퍼니)의 김영준 전 대표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부터 교수로 나서게 된다.

김영준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초까지 운영하던 다음기획의 대표직을 사임한 뒤 오랜 시간 가요계에 몸담았던 노하우를 살려 세한대 실용음악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학과장이 된 김 전 대표를 위해 윤도현이 세한대 특강교수로 학생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다.

현재 윤도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다컴퍼니와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는 조만간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약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다컴퍼니 측은 전했다.

윤도현은 "열정이 가득할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설렌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영준 전 대표는 "새롭게 학과를 세팅하는 입장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다.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기대가 무척 크다"며 윤도현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윤도현은 YB와 바비킴의 합동 콘서트 동시상영 을 준비중이다. 공연은 20일 대전에서 시작해 대구, 부산을 거쳐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비무리한다.

/김학철기자

화영 '옥이네'로 국악 도전

방송 최초 창극 시트콤… 해학 선보여

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인 배우 화영(사진)이 방송 최초로 시도하는 창극시트콤 '옥이네' OST에 참여했다. SBS 특집극 '엄마의 선택'으로 연기 신고식을 치른 화영은 '옥이네' 주인공으로도 출연하게 됐다.

'옥이네'는 전주박물관에서 사라진 조선왕조실록과 용의자로 의심받는 가족, 두 가지 소중한 것을 지켜내려는 옥이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시트콤과 판소리를 조화해 창극의 해학을 보여줄 예정이다. 화영은 '옥이네'에서 더 할질에 김수성 공부한 방송국 신입 PD 한옥 역을 맡았다.

최근 화영은 '옥이네' 수록곡 녹음을 통해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섰다. "국악을 부르는 게 처음"이라는 그는 장단에 익숙해질 때까지 노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녹음 현장에는 '옥이네' 출연진도 함께 했다. 옥이 아버지 한수 역의 배우 정은표는 애틋한 감정이 녹아든 노래로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명창 한일 역의 왕기석도 짧은 시간에 녹음을 끝내며 노래 실력을 뽐냈다는 후문이다.

류장영 '옥이네' 음악 총 감독(현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장)은 "창극 시트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모든 배경음악을 국악풍으로 제작했다"고 OST를 소개했다.

이어 "모든 곡들이 젊은 사람들도 듣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제작 돼 입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라며 "'검은 산비단기' '몰랐는데' '시간은 흐르고' '노저녀기' 같은 다양한 노래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옥이네'는 내년 1월 1일 오후 5시와 2일 오후 4시40분 두 차례에 걸쳐 KBS2에서 방송된다.

/정효진기자

팬클럽 '신해철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오는 27일 넥스트 공연장서 진행

고(故) 신해철의 팬클럽 철가군이 '신해철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펼친다.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철가군이 연말에 있을 넥스트 유나이티드(U.d.) (이하 넥스트) 공연에서 '신해철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팬들의 뜻을 존중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의료 사고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의료 분쟁에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신해철법 의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해당 서명 운동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이번 청원의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 법의 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의술이라는 숭고한 의사들의 직업적 자부심과 의료행위를 위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이 균형을 잃지 않고 약자를 더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그들이 우리의 대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모든 국민을 위해 '신해철법'이 꼭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열린 고(故) 신해철 49재 추모식에 팬들이 적어놓은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 서울 고려대 화정 체육관에서 열리는 넥스트의 공연은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이날 공연은 6년 만에 재결성한 넥스트의 현 멤버들과 역대 멤버들이 모두 모여 고인을 기리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공연 수익금은 고인의 두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세인기자 seinkim@metroseoul.co.kr

엑소 콘서트 실황 앨범으로

두 장의 CD·36트랙 수록… 22일 발매

그룹 엑소(EXO·사진)의 첫 단독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담은 실황 앨범이 오는 22일 발매된다.

이번 앨범은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펼쳐진 단독 콘서트의 공연 실황을 그대로 담았다.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끼려는 팬들의 기대가 높다.

또한 이번 앨범에는 오는 19일 모바일 리듬게임 '슈퍼스타 SM타운'을 통해 선공개되는 엑소의 두 번째 겨울 시즌송 '디셈버, 2014 (더 윈터스 테일)'도 특별히 수록됐다.

이와 함께 콘서트에서 선보인 '으르렁' '중독' 등의 히트곡과 각 멤버들의 개성을 담은 개인 무대가 앨범에 담겼다. '블랙 펄' '러브, 러브, 러브' '늑대와 미녀' '드러머' 등 4곡의 콘서트 편곡 스튜디오 버전도 수록됐다. 총 36트랙이 두 장의 CD에 걸쳐 담겨있다.

이번 앨범은 22일 오후 12시 멜론, 지니, 네이버 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 공개된다.

한편 첫 단독 콘서트 투어가 한창인 엑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투어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BS 2015년 확 바뀐다

'힐링·소통·지적 호기심' 키워드로… 최대 규모 개편
조대현 사장 "시청자와 더 가까이"… 종편 영향력 견제? "어불성설"

KBS가 2015년 변화를 약속했다. 24개 프로그램을 새로 편성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개편을 실시한 것이다.

17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5 KBS 개편간담회'에서 조대현 KBS 사장은 "세월호 참몰로 KBS가 표류했을 당시 1월부터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유료 방송을 포함한 모든 채널의 프로그램을 조사해 '힐링', '소통', '지적 호기심'을 키워드로 선정했다. 소통을 통한 화합을 이루고 경제·문화적으로 번영하는 시대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키워드 '힐링'은 KBS1 일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KBS2 '투명인간' 등이 담당한다. KBS1 '이웃집 찰스', KBS2 '작걸하고 본방사수'는 시청자와의 '소통'을 중시한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프로그램으로는 재정비된 KBS2 '이유만만', '생생정보' 등이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 방영 중인 KBS2 '해피투게더'는 시즌4를 준비하고 있다. KBS가 최초로 시도했던 시즌제 예능 프로그램인 KBS2 '나는 남자다'는 시즌1 종영 후 1월 안에 '용감한 가족' 첫 번째 시즌을 방송할 예정이다.

박중민 KBS 예능국장은 "'용감한 가족'은 8~10회를 한 시즌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해피투게더' 시즌4의 경우 프로그램 포맷이 변화할 지 MC가 바뀔지 아니면 둘 다 바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5 KBS 개편간담회 조대현 사장. /KBS 제공

KBS는 내년부터 금요일 오후 9시30분~오전 12시30분을 '들연변이 존(Zone)'으로 정했다. 예능·교양·드라마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는 뜻이다.

그 일환으로 선보이는 '스파이'는 KBS의 첫 번째 금요 미니시리즈다. 이스라엘 드라마 '마이스(MICE)'가 원작인 가족 첩보 스릴러물로 김재중·고성희·배종옥·유오성이 출연한다. 내년 1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9시20분~11시50분까지 1부·2부 연속 방영한다.

김재중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요드라마를 처음 제안 받았을 때 고민이 됐지만 주변에서 강력하게 추천했다"며 "2부작 연속 방송하는 도전이 새롭다. (그 출발점에 있는 '스파이'에 출연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러나 KBS의 개편을 두고 종편과 케이블이 지상파를 위협하는 세대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오진산 콘텐츠창의센터장은 "어불성설"이라며 "KBS가 10년 전에 한 개편 포트폴리오가 모든 방송사에 있다. 모든 프로그램이 KBS에서 시작된 걸 뜻한다"고 반박했다.

KBS는 내년 1월부터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와 소통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전효진기자 [email unclear]@metroseoul.co.kr

이성경 '적도의 꽃' 첫 주연

김성령과 모녀 연기 '기대↑'

배우 이성경(사진)이 MBC 새 주말드라마 '적도의 꽃(가제)'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적도의 꽃'은 야망으로 가득 찬 여자와 그가 버린 딸이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성경은 작품에서 유학생이자 알바의 달인인 강이솔 역을 맡았다. 밝고 건강한 성격에 가족을 사랑하는 씩씩한 인물이다.

강이솔을 버린 엄마 레나 정 역은 배우 김성령이 맡았다. 이성경과 김성령의 모녀 연기 호흡이 방영 전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성경은 모델로 활동하며 젊은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로 인지도를 쌓아 왔다. 올해 9월에는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로 연기 신고식을 치렀다. 문제 작심 안소녀 역을 맡아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박수광(이광수)과 로맨스 연기를 펼쳤다. 첫 연기임에도 호평을 받으며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적도의 꽃'의 한 관계자는 "이성경은 오디션을 통해 찾아낸 보석 같은 존재"라며 "많은 후보자들을 제치고 실력으로 여주인공이 됐다"고 말했다.

이성경의 첫 주연작 '적도의 꽃'은 '전설의 마녀' 후속으로 내년 3월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최강희·천정명 '달달한 호흡'

'미생' 후속작 '하트 투 하트' 1월 9일 첫 방송

tvN 금토드라마 '미생'의 후속작인 '하트 투 하트'가 17일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배우 최강희와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배우 천정명의 조합이 보는 이로 하여금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트 투 하트'는 정신과 의사 고이석(천정명)과 대인기피증 안면홍조증을 지닌 차홍도(최강희)의 로맨스를 다루는 '명랑 치유' 드라마다. 두 사람은 저로를 빙자한 수자례 만남으로 각자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간다.

'하트 투 하트' 공식 포스터 최강희, 천정명. /CJ E&M 제공

'하트 투 하트'는 인기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이윤정 감독이 tvN에서 선보이는 첫 작품으로 기획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2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최강희와 OCN 드라마 '리셋'으로 3년 만에 브라운관을 찾았던 천정명의 연기 변신이 관전 포인트다.

이날 공개된 포스터는 수십 권의 책이 가득 쌓여있는 방에 가까이 붙어 앉은 최강희와 천정명의 모습을 담았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최강희에게 몸을 기울이고 있는 천정명의 모습에서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날 로맨스를 짐작할 수 있다.

제작진은 "두 배우가 캐릭터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며 "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시청자들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트 투 하트'는 tvN을 통해 내년 1월 9일 첫 방송된다. 이에 앞서 tvN은 오는 20일 종영하는 '미생' 스페셜 방송분을 26일·27일, 1월 2일·3일 총 2주간 4회에 걸쳐 방영할 예정이다. /정의선기자 [email unclear]

MBC '무한도전' 정준하·하하·유재석·박명수·노홍철(전 멤버)·정형돈(왼쪽부터). /MBC 제공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 오연서. /웰메이드이엔티 제공

'무한도전' '장보리' 시청자 선호도 1위

2014 채널 이미지 조사 결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과 드라마 '왔다! 장보리'가 프로그램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예능·드라마 중 시청자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이다.

MBC가 전문 조사기관 나이스R&C에 의뢰해 실시한 '2014 채널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한도전'은 즐겨 본 예능 프로그램 부문에서 25%의 선택을 받았다.

이는 2위인 타사 프로그램과 14% 포인트 이상의 격차다.

'무한도전'은 첫 방송 후 9년 동안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예능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MBC의 대표작이다. 멤버들을 둘러싼 사건사고로 잡음이 있었지만 올 연말까지도 '무한도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다.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특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를 풍미했던 유명 가수들이 총출동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왔다! 장보리'가 시청자가 즐겨 본 드라마 1위(15.2%)에 올랐다. '보리 보리 장보리', '연민정' 같은 유행어를 만들며 방영 내내 화제가 된 작품이다.

'왔다! 장보리' 외에도 현재 방영 중인 '미스터 백', '오만과 편견', '전설의 마녀' 등이 가장 즐겨 본 드라마로 거론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 거주자 가운데 평일 저녁 30분 이상 TV를 시청하는 만 13~69세까지의 시청자 105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전효진기자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허삼관'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출연진이 포토타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인생 최대의 고민 준 작품"

하정우, '허삼관'으로 감독·주연 1인 2역 도전
하지원 캐스팅은 "시나리오 보고 바로 생각"

충무로 대세 배우 하정우가 새해 자신의 두 번째 감독 영화로 극장가를 찾는다. 주연까지 도맡은 '허삼관'이다.

17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허삼관' 제작보고회에는 주연 배우 겸 감독 하정우를 비롯해 하지원·정만식·김성균·전혜진·장광·이경영 등 출연 배우들이 참석했다.

'허삼관'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인 위화의 소설 '허삼관 매혈기'를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다. 천하태평 성격에 뒤끝 있는 허삼관이 절세미녀 아내 허옥란과 세 아들을 얻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하정우는 주인공 허삼관을 연기했다.

2013년 '롤러코스터'로 감독 데뷔 신고식을 치른 하정우는 '허삼관'에서 감독과 주연으로 1인2역에 도전했다. 그는 "이 작품을 연출하면서 수백 번을 후회했다"며 "그동안 원작 소설을 영화화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구나 싶었다. 인생 최대로 삼도 같은 고민에 빠졌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세상에는 재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배우와 스태프들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첫 촬영을 시작하면서 큰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 하지만 촬영을 하는 동안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각자 꼼꼼히 지켜보고 멋지게 소화해주는 모습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화는 하정우와 충무로 대표 흥행 퀸 하지원이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춰 화제가 됐다.

하정우는 하지원의 캐스팅에 대해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하지원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1순위로 출연을 제안했다. 함께 작업하게 돼 감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원을 연어에 비유하며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그 활동성이 많은 닮은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원은 "하정우 감독님이 배우이기도 한 만큼 현장에서 잘 챙겨줬다. 오빠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하정우는 "어떻게 하면 배우들이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허삼관'은 내년 1월 15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호랑이' 사냥 나선 최민식

'대호' 크랭크인… '신세계' 박훈정 감독 신작

'신세계'의 박훈정 감독의 신작이자 배우 최민식(사진)의 차기작인 영화 '대호'가 지난 15일 지리산 구룡 계곡에서 크랭크인했다.

'대호'는 일제 강점기 지리산의 산군(山君)이자 조선 호랑이의 왕으로 일컬어졌던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와 조선 최고의 명포수 천만덕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올해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최민식은 '대호'에서 오래 전 총을 놓은 조선 최고의 명포수 천만덕으로 분해 영화의 위용과 전설을 재연한다.

첫 촬영을 마친 뒤 최민식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말락되 가는 느낌이 든다"며 "산에서 영화를 찍으니 너무 좋다. 맑은 산의 정기 속에서 모두가 몸 건강히 우리가 원하는 작품의 기운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연진도 화려하다. 정만식은 일제의 명으로 대호를 사냥해야 하는 조선 포수대 리더 구경 역을 맡았다. 김상호는 만덕 부자에 대한 정을 간직한 포수 칠구로 함께 한다. 만덕의 아들 석이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인성의 아역을 연기한 성유빈이 연기한다.

이 밖에도 일본의 명배우 오스기 렌을 비롯해 정석원·라미란·김홍파·우정국·박인수·이은우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한다.

제작진은 대호가 포효했던 무대이자 조선의 백성을 품었던 깊은 산세를 표현하기 위해 문명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대자연의 풍광을 찾아 6개월 동안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화는 내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국제시장' 베를린영화제 간다

"장엄한 필치를 인간적 이야기로 풀어내"

영화 '국제시장'이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고 17일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국제시장'은 내년 2월 5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베를린국제영화제의 파노라마 부문은 예술성과 대중성이 적절히 결합된 작품이나 그 해 주목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부문이다. 한국 영화는 그 동안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비밀의 여인' '부당거래' 등이 초청된 바 있다.

빌란트 슈텍 파노라마 부문 집행위원장은 "'국제시장'은 분단과 굴곡진 현대사를 딛고 전례 없는 발전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장엄한 영화적인 필치와 인간적인 지원의 이야기로 훌륭히 풀어냈다"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영화를 연출한 윤제균 감독은 "세계적인 영화제에 초청 받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한다. 모든 스태프와 배우, 영화를 만든 모든 사람들의 진심과 노력이 전해져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국가와 인종을 넘어 전 세계의 아버지와 아들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를린영화제에서 '국제시장'을 만날 전 세계 관객에게도 이 뜨거운 감정과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제시장'은 꿈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덕수(황정민)가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살아온 삶을 통해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17일 개봉했다.

/장병호기자

'변호인', 청룡영화상 4관왕 차지

1000만 관객 동원한 '명량'은 감독상 수상에 그쳐

올해 청룡영화상은 '변호인' '한공주' '끝까지 간다'의 사이좋은 수상으로 마무리됐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5회 청룡영화상에서 영화 '변호인'이 최우수작품상·남우주연상(송강호)·여우조연상(김영애) 등 총 4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강호는 "오늘은 '변호인'이 개봉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라며 "이렇게 멋지게 대미를 장식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나라는 존재도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크호스로 떠오른 영화는 '한공주'였다. 이수진 감독이 신인감독상을 수상한데 이어 여우주연상도 천우희가 받으며 독립영화로서 드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천우희는 "유명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큰 상을 받았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고맙다. 앞으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길 바란다"고 눈물의 수상소감을 전했다.

입소문을 타고 흥행에 성공한 '끝까지 간다' 역시 각본상과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인상 깊은 악역 연기로 남우조연상을 받은 조진웅은 "이 영화는 내게 감독님, 스태프, 이선균 등의 형제를 선물해줬다"며 "이 상 역시 연말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명량'은 '변호인'과 함께 올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이번 시상식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으나 감독상(김한민)과 한국영화 최다관객상을 받는데 그쳤다.

/김지민기자 kimjm@

배우 천우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다른 계절보다 증가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감기가능지수 / 현재 계절증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강남 귤이 왜 강북에서 탱자가 될까?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약 2500년 전,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 안영이 이웃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마침 제나라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 붙잡혔다. 초왕이 안영에게 빈정거리며 물었다.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도둑질을 잘하나?" 그러자 안영이 대답했다. "강남 귤을 강북으로 옮겨 놓으면 탱자가 되는데 그것은 토질과 물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제나라에서는 도둑질을 모르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한 것을 보면 초나라 풍토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남 귤이 강북에 가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여기서 비롯됐으니 한자로 남귤북지(南橘北枳)라고 한다.

서울의 한강처럼 중국의 강남북을 구분 짓는 기준은 회하(淮河)라는 강이다. 회남(淮南)과 회북(淮北)을 가르는 기준이다. 황하와 양자강 사이를 흐르는 강으로 중원이라고 하는 중앙의 하남성을 지나 안휘성과 강소성을 거치며 황해로 빠지는데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다.

그런데 강남 귤이 강북으로 가면 진짜 탱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상식으로는 터무니없다.

귤과 탱자는 맛도 다를 뿐더러 종자 자체가 아예 다르다. 식물분류체계상 귤은 운향과 감귤속에 속하는 과일이고 탱자는 운향과 탱자속의 열매다.

반면 생김새는 아주 비슷하다. 그러니 2500년 전에는 같은 종류의 열매로 오해했을 수 있다. 그러니 토양과 물에 따라 맺는 열매가 달라져 강남 귤이 강북에서는 탱자가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옛 사람들이 강남 귤이 강북가면 탱자가 된다고 믿었음만한 이유는 있다.

과학적으로 회하가 중국 귤 재배의 북방 한계선이었기 때문이다. 강북에서는 귤이 자라지 못하고 탱자만 자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남 영암 월출산이 귤과 탱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월출산 북쪽 끝이 회하의 일직선이 된다며 중국은 강남 귤이 강북 가면 탱자가 되지만 우리는 월출산을 넘으면 탱자로 바뀐다고 썼다. 무심코 흘려듣는 옛말이지만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1					
	7					4		6
1	9			5				
5	2				3			4
		9				1		
4			9				6	7
				3			8	1
8		8					3	
					5	7		

8		4	1					
					3		7	9
				7				8
	2	8			7			
4	3						1	5
			9			6	6	
5				6				
2	6		3					
					2	3		6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엔사 스도쿠 프리미어」 (개러스 무어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결혼 생각 안하는 아들 걱정됩니다 40세 넘어 철들면 알아서 해결해요

Q 월익귀인 남자 84년 12월 16일 양력 10시경

저의 아들의 사주입니다. 외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봉급을 타면 집에 한 푼도 안 갖고 오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여자는 많은 것 같은데 자주 바뀌는 것 같다고 누이동생이 귀띔을 해줘서 알았습니다. 직장이 야간작업도 많고 어느 때는 회사 기숙사에서 자고 오기도 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둬도 도리를 하면서 잘 살 수가 있는지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아니고 돈을 벌어 놓은 것도 없으며 남자로서 자랑스러운 게 없으니 결혼할 여지가 있는지도 사주팔자가 어떻게 전개되나요?

A 아드님의 사주를 보면 나무 위의 원숭이 와 같은 형상으로 다재다능하고 기능적재주가 비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전문적 기술을 배워 묵묵히 그 기술을 사용한다면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또 운이 좀 더 좋다면 학업을 뒤늦게 해서 기능인으로 후학을 가르치는 학문적인 길로 성공하는 예도 많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다면 공부해야 할 시기에 학업보다는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쏠려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자(孔子)는 일찍이 <논어(論語)>에서 자신의 나이를 보며 40세를 불혹(不惑: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50세를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뜻을 안다)이라고 했습니다. 아드님은 40세 까지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사주와 운을 종합해 보면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으니 겉으로는 같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잘 꾸미고 허세도 심하고 자존심상 지고는 못사는데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니 그저 허망한 꿈을 쫓아 이 꽃 저 꽃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꿈은 크고 생각도 많으나 너무 큰 이상 때문에 오히려 행동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부모님이라고 해도 아드님의 고집을 꺾기는 어렵죠군요. 스스로 철이 들어야만 변화하는데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옛 말을 생각해보세요. 운이 남들보다 좀 늦게 들어오니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40대 이후에 철이 들면 그때는 알아서 척척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더십도 생기게 되고 현침살(懸針殺: 날카로운 기운)로 기물을 다루는 목공일이나 또는 현재하고 있는 분야로 성공하게 되니 재능을 잘 살려서 천직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묻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18일 (음 10월 27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사람 소개는 신중할 것. 60년생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72년생 말뮤의 말부터 꺼고 다음 생각하라. 84년생 마음먹은 대로 해야 후회가 없다.

소 49년생 과음하면 추태 보인다. 61년생 배우자에 충고는 우회적으로 하라. 73년생 돌려막기는 금방 한계 온다. 85년생 고정관념서 빨리 벗어나라.

호랑이 50년생 아픔은 살 뿐 흔적 남기지 말라. 62년생 해묵은 숙제 해답은 찾는다. 74년생 능력을 인정받아 기쁜 하루~ 86년생 뜻밖의 대답시 좌장 색 돈다.

토끼 51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3년생 고민해결시 먹잖이 뿌듯~ 75년생 방심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87년생 염려보다 꿈을 보고 선택하라.

용 52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64년생 비난이 박수로 바뀔 거이다. 76년생 타자 포용하는 힘을 길러라. 88년생 상실한 자신감 회복될 기적 온다.

뱀 53년생 과음하면 탈이 잡긴다. 65년생 한쪽에 불리지 않도록 조심~ 77년생 피부에 와 닿은 당근이 유혹한다. 89년생 아찔한 별로다 데이트는 미루세요.

말 42년생 가족위해 몸을 던져 보자. 54년생 상상을 뛰어넘어야 기회 잡는다. 66년생 이름이 빛나는 일 생길수도. 78년생 책무 게을리 하면 불똥 튄다.

양 43년생 자녀 일 독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55년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늘려라. 67년생 2면자 꼬리표 될 경사 생긴다. 79년생 대화로 합리적 해결점 찾아라.

원숭이 44년생 급할수록 여유 가져라. 56년생 뜻밖의 인생에 큰 선생 만난다. 68년생 규정에 자신을 너무 가두지 말라. 80년생 미궁을 키워야 꿈이 이루어진다.

닭 45년생 힘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57년생 대화 한 말다툼 조심할 것. 69년생 이달밤 대인관계 덕을 톡톡히 본다. 81년생 능력 밖의 일에 덜 받지 말라.

개 46년생 마음 편안히 갖도록 노력하라. 58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릴 격이다. 70년생 뜻을 이루려면 항상 변화 궁구라. 82년생 현실 받아들이는 게 이롭다.

돼지 47년생 이웃이 즐겁게 한다. 59년생 진심에 초롱이 솔솔~ 7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회장 되찾는다. 83년생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라.

손연재 올해를 빛낸 스포츠 ★

김연아는 2위…류현진·박태환·손흥민 뒤이어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사진)가 올해를 빛낸 스포츠 선수 1위에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한국갤럽은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스포츠 선수는 누구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2%가 손연재를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주간 전국(제주도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3명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손연재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전에도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꼽힌 바 있다.

'피겨여왕' 김연아는 응답자의 33.3%의 지지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이어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9.1%), '마린보이' 박태환(24.5%), '손세이셔널' 손흥민(12.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 간 3차례(2007·2008·2009년)나 최고 스포츠 스타로 꼽혔던 김연아는 지난해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1위에 올랐던 류현진은 올해 3위로 떨어졌다.

6위는 올 시즌 부상과 재활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낸 '추추트레인' 추신수(5.5%)가 차지했다. 일본프로야구 챔피언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4번 타자 이대호(3.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3.1%), 빙속 여제 이상화(2.8%), 데뷔 20년을 맞은 삼성 라이온스의 '국민 나사' 이승엽(2.7%)이 7~10위를 차지했다.

남성보다 여성이 손연재와 김연아에게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이 눈에 띈다. 응답 여성의 50%가 손연재를 1위로 꼽았고, 40%는 김연아를 2위로 선정했다. 반면 남성 응답자 37%는 류현진을 1위로 꼽았고 손연재(2위·34%), 김연아(3위·27%) 순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P다. 갤럽은 2006년부터 매년 그 해를 빛낸 각 분야의 '올해의 인물'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524@metroseoul.co.kr

'턱수염' 윌슨, 다저스 떠난다

올 시즌 기대 이하 활약에 '지명할당' 조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턱수염' 브라이언 윌슨(32·사진)이 결국 방출됐다.

17일(한국시간) 다저스는 윌슨을 사실상의 방출을 의미하는 '지명할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윌슨은 10일 동안 자신을 데려갈 구단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거나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다저스는 윌슨의 내년 시즌 연봉 950만 달러(약 103억원)를 부담해야 한다.

다저스는 앞서 선발 투수 댄 해런과 내야수 디 고든을 마이애미 말린스로 트레이드하면서 총 1250만 달러(약 136억원)의 연봉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내년 시즌 다저스에서 한 이닝도 뛰지 않을 3명의 선수에게 2200만 달러(약 239억원)를 지불하는 셈이다.

파르한 자이디 다저스 단장은 "우리에게 계약은 계약"이라며 "재정적인 의무에 속박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팀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윌슨이 우리 팀 최고의 불펜 투수 7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윌슨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던 윌슨은 2013 시즌 도중 다저스에 합류해 평균자책점 0.66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2승 4패 평균 자책점 4.66으로 부진했다. 세이브 개수는 1개에 불과했고 48⅔이닝을 던지면서 달삼진 54개를 기록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박주호·구자철' 마인츠, 8경기 연속 무승

치열한 중위권 싸움…20일 1위 뮌헨과 경기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박주호(오른쪽) /AP연합뉴스

'태극전사' 박주호와 구자철이 속해 있는 독일 프로축구팀 마인츠가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8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다.

마인츠는 17일(한국시간) 독일 쾰른의 라인 에네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린 FC쾰른과의 2014~2015 분데스리가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쾰른과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박주호는 마인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고 구자철은 후반 교체투입돼 경기장을 누볐다.

쾰른을 상대로 승점 1을 챙긴 마인츠(승점 18·골득실 -3)는 파더보른(승점 18·골득실 -4)에 골득실 차로 앞서 리그 11위로 올라섰지만 최근 8경기에서 4무4패의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날 경기에서 마인츠는 간간이 기회를 만들었지만 답답한 흐름이 계속됐다. 마인츠는 후반 16분 알리귀 대신 구자철을 투입해 공격에서 변화를 꾀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후반 30분에는 오카자키 신지가 날린 회심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불운도 겪었다.

한편 마인츠, 파더보른, 헤르타 베를린,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등 분데스리가 11위부터 15위까지의 5개 팀이 승점 3점 이내에 몰려있어 중하위권 경쟁이 치열하게 됐다. 마인츠는 20일 리그 1위 뮌헨을 맞아 무승 행진을 끊기 위한 열전을 준비한다.

/김학철기자

2015년 프로야구 3월 28일 개막

KT 위즈 합류로 10개 구단 총 720경기로

2015년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내년 3월28일 토요일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KT 위즈의 1군 무대 진출로 10개 구단 체제로 진행될 프로야구 2015년 페넌트레이스 일정을 발표했다. 팀당 144경기, 팀간 16차전씩 총 720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개막전 경기는 2013년도 순위를 기준으로 1-6위, 2-7위, 3-8위, 4-9위, 그리고 5위와 KT 간 경기로 짜였다. 이에 따라 삼성-SK(대구), 두산-NC(잠실), KIA-LG(광주), 넥센-한화(목동), 롯데-KT(사직)가 3월 28~29일 개막 2연전에서 맞붙는다.

KBO는 개막전 이후 8월 2일까지 3연전, 8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연전을 치르는 일정으로 715경기를 우선 편성했다. 잔여 5경기와 우천순연 경기 등은 9월 15일 이후로 재편성할 예정이다.

한편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에 따라 올해는 넥센-삼성(목동), 두산-LG(잠실), 한화-KT(대전), 롯데-SK(사직), NC-KIA(마산) 대진으로 열린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17일

SK	20	16	21	25	89
오리온스	16	19	26	25	86
동부	16	17	23	21	77
전자랜드	23	13	14	22	72
우리은행	14	17	23	20	74
삼성	10	8	11	12	41

프로배구 전적 17일

흥국생명	2	3	IBK기업은행
대한항공	1	3	현대캐피탈